

박제된 선택을 거부한다 행복한 여성주의

연세대학교 제 16대 총여학생회

happyfem@yonsei.ac.kr / www.yonsei.ac.kr/~ysfem

2004. 2월 4일 26일 발행

특집

엄마와 딸, 마주보다

기획 여성노동

조선대학교 학생회장 이원희 학생회장 최정희

누가 성폭력을 두려워 하는가

재미있게, 또는 외람되게 미디어 읽기 흥분하면

김소이 바라문 세상

"남성도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는가"라고 묻는 남자들에게



She Said



She Said

CONTENTS



- 1. Introduction
- 2. Chapter 1
- 3. Chapter 2
- 4. Chapter 3
- 5. Chapter 4
- 6. Chapter 5
- 7. Chapter 6
- 8. Chapter 7
- 9. Chapter 8
- 10. Chapter 9
- 11. Chapter 10
- 12. Chapter 11
- 13. Chapter 12
- 14. Chapter 13
- 15. Chapter 14
- 16. Chapter 15
- 17. Chapter 16
- 18. Chapter 17
- 19. Chapter 18
- 20. Chapter 19
- 21. Chapter 20
- 22. Chapter 21
- 23. Chapter 22
- 24. Chapter 23
- 25. Chapter 24
- 26. Chapter 25
- 27. Chapter 26
- 28. Chapter 27
- 29. Chapter 28
- 30. Chapter 29
- 31. Chapter 30
- 32. Chapter 31
- 33. Chapter 32
- 34. Chapter 33
- 35. Chapter 34
- 36. Chapter 35
- 37. Chapter 36
- 38. Chapter 37
- 39. Chapter 38
- 40. Chapter 39
- 41. Chapter 40
- 42. Chapter 41
- 43. Chapter 42
- 44. Chapter 43
- 45. Chapter 44
- 46. Chapter 45
- 47. Chapter 46
- 48. Chapter 47
- 49. Chapter 48
- 50. Chapter 49
- 51. Chapter 50
- 52. Chapter 51
- 53. Chapter 52
- 54. Chapter 53
- 55. Chapter 54
- 56. Chapter 55
- 57. Chapter 56
- 58. Chapter 57
- 59. Chapter 58
- 60. Chapter 59
- 61. Chapter 60
- 62. Chapter 61
- 63. Chapter 62
- 64. Chapter 63
- 65. Chapter 64
- 66. Chapter 65
- 67. Chapter 66
- 68. Chapter 67
- 69. Chapter 68
- 70. Chapter 69
- 71. Chapter 70
- 72. Chapter 71
- 73. Chapter 72
- 74. Chapter 73
- 75. Chapter 74
- 76. Chapter 75
- 77. Chapter 76
- 78. Chapter 77
- 79. Chapter 78
- 80. Chapter 79
- 81. Chapter 80
- 82. Chapter 81
- 83. Chapter 82
- 84. Chapter 83
- 85. Chapter 84
- 86. Chapter 85
- 87. Chapter 86
- 88. Chapter 87
- 89. Chapter 88
- 90. Chapter 89
- 91. Chapter 90
- 92. Chapter 91
- 93. Chapter 92
- 94. Chapter 93
- 95. Chapter 94
- 96. Chapter 95
- 97. Chapter 96
- 98. Chapter 97
- 99. Chapter 98
- 100. Chapter 99
- 101. Chapter 100



She said

CONTENTS



04 기획 | 여성노동

여는 글 • 4

학내여성노동자 - '그녀들의 숨은그림' 찾아 나서기 • 6

노동개념 새로쓰기 • 11

여성노동의 현실 • 14

제 3세계의 여성노동자 • 17

20 행복한 여성주의와 함께 하는 이야기 1

수업모니터링을 제안합니다

21 특집 | 엄마와 딸, 마주보다

여는 글 • 21

엄마와 딸의 싸움은 계속된다 • 22

딸에게 항상 박수를 보내던 그녀, 목소리를 내어보다 • 24

우리엄마 새롭게 바라보기 • 28

30 행복한 여성주의와 함께하는 이야기 2

반성폭력 학칙개정 - 학생측 개정안 실현

32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여량의 반성폭력 이야기

누가 성폭력을 두려워 하는가

34 이갈의 여성주의로 읽는 이야기

여성 영화제에서 만난 가족에 관한 아쉬운 초상화

- 기와세 나옴의 <가족의 초상>

36 뭉이 만담 학교에서 죽다 - 당신은 학교이야기의 주인공이었습니까?



39 여성주의 만화 동아리나 학회에서

40 흐름이 만난 문화&문화쟁이 아름다운 80

42 재미있게, 또는 외람되게 미디어 읽기 총선맞이편

45 행복한 여성주의와 함께하는 이야기 3

제2회 색슈얼리티 문화제 홍보

46 여성학 서평

희망으로 가득찬 미치광이

수잔브라운의 「이야기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

49 행복한 여성주의와 함께하는 이야기 4 홈페이지

50 썸의 달콤쌉싸름한 일상다반사

그녀들이 머리를 묶는 이유

52 남성이 바라본 세상

“남성도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는가”라고 묻는 남자애들에게

55 여자만의 방

여는글



왜 여성노동인가?

이번 호를 통해 여성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자는 의견이 모아졌을 때 조금 망설임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자칫하면 이미 여성노동에 대해 나왔던 많은 이야기들과 비슷한 이야기만을 하고 말게 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일, 일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야 보기로 했다. 사회적으로 여성노동에 대한 담론은 노동문제의 하위 범주로 혹은 여러 여성문제의 일환으로 줄곧 등장해 왔지만, 오히려 그래서일까? 문제가 정말 '문제'로 인식되지 않거나 여전히 이야기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지적되고 이슈화되는 만큼 개선되지는 않고 있는게 사실이다.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문제제기와 재평가, 여대생 취업난/채용시 외모평가/임금차별/출산과 육아로 인한 불이익/승진차별/비정규직화 등 각종 취업시장에서의 성차별성, 직장 내 성폭력 등등, 구조화된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해결해야 할 것들은 너무 많이 남아있다.

그렇다고 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해보자는 것은 아니니 할 수도 없다. 그저 she said를 통해 소박하게나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었다. 그래서 여성 노동이 처해있는 조건과 여성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와 함께 아직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은 이야기- '감정노동'에 대한 그리고 세계화 속 제3세계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그리고 해내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일하는 여성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그녀들을, 그녀들의 일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았다.

학내 여성노동자를 만났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들은 학내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성들에게 많은 부분 의존하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식판에 밥과 반찬을 받을 때 간식이나 문구나 책을 살 때 책을 빌릴 때 은행에서 하안생 만나생 일생생 등등 다 걸가도 힘든 각종 '생'에서 도서관에서 우리는 그녀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난다. 그리고 강의실 복도 화장실 등등 곳곳을 청소해 주시는 분들까지도. 이렇게 우리의 일상과 밀접해있는 여성들에 대해 장작 우리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다. 출근은 몇 시에 하시는지 하루에 몇 시간까지 일하시는지 쉬는 시간은 얼마나 있는지 혹은 있거나 한지 일급은 얼마나 되는지 어려운 질문 무엇인지, 또 즐거운 건 어떤게 있는지, 정산없이 학생들이 몰려드는 장삼때쯤 하안생에서 땀방이를 받으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면 종종 들었던 생각이 있다. 밀린 주문 때문에 정산없이 감압을 받고, 부침개를 부치고, 토스트를 만드는 그래서 너무도 지쳐 보이는 아주머니들을 보면서 하안생 분식과나같은 경우엔 맛나생처럼 아주머니들의 식사시간이 따로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저분들은 잠깐이라도 대체 언제 쉬실까, 식사는 언제 하실까 그리고, 참 고된 일 같다는 여러 궁금증들을 안고, 솔직히 말하면 일하면서 가장 어렵고 불만인 것이 무엇인지를 그녀들의 목소리를 통해 듣고 싶어서 이 주제를 계획했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러한 계획은 80% 실패하고 말았다. 이유는 그녀들이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녀들은 이야기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하는 여성들의 입을 막는 사회

여성들은 언제나 일 해 왔고 일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일은 없는 것처럼 혹은 별로 중요치 않은 것처럼 여겨져 왔다. 누군가의 초등학교 시절 가정환경조사서에 엄마의 직업을 '주부'로 적어줬다가 선생님께 이게 무슨 직업이냐며 이단 아닌 이단을 맞았던 기억처럼, 끝도 없는 가사일을 하는 여성에게 무얼 하십니까?라고 물으면 그냥 집에 있어라 혹은 집에서 놀아라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이는 공적인 영역의 일만을 중요한 일 가치있는 일로 여기는 이 사회가 만들어낸 당연한 현상일지 모르겠으나 문제는 그 '공적' 영역이라는 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이자도 자신의 일에 대해 당당히 이야기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무엇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여성들이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직업에 따라서, 직위에 따라서 여성이 자신의 일에 대해 거침없이 이야기

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자리에 있고 권력이 있다면, 혹은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다면 그 여성은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은 사정이 다르며, 중요한 것은 일하는 여성들의 많은 수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차례 인터뷰를 시도하면서 소속과 이름이 잘라 드러나지 않도록 글을 쓰겠다고도 부탁해 보았고, 그것도 안된다면 글 쓰지 않을테니 그냥 이야기만 들려달라고도 부탁해보았지만 많은 분들이 입을 다물었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으리라. 쉬는 시간이 없어 이야기할 수 없거나 근무 시간 중 딱 20분 쉴 수 있는데 그게 점심시간이라니 무슨 인터뷰를 하겠는가. 퇴근하자마자 가사일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달려가야해서 이야기할 수 없고, 관리자의 허락이 없어 이야기할 수 없고, 이야기해야 무엇이 달라지겠냐는 냉소로 이야기할 수 없고, 혹은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이야기할 수 없다. 어떤 이는 불만이 없다고 하지만 결국은 억울함이 쌓여나오고, 어떤 이는 불만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만 개인적인 문제라고 일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웃어넘긴다.

이 사회는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참으로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여성들이 다 같이 이야기하려면 좋을텐데, 아직은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실명 다같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끌어나오는 깊은 외침으로 지르고 싶다. 끊임없이

『왜 우리의 입을 막느냐고』

by 생



학내여성노동자:

'그녀들의 숨은 그림' 찾아 나서기



학교에서 일하는 여성을 만나는 것에 대해 우린 너무 쉽게 생각했다.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그녀들을 만나게 되자, 여기저기 숨어있던 방해요소들이 출현했던 것이다.

그녀들의 이야기는 그녀들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들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의 것이었다. 관리자의 허락이 없이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고, 관리자의 허락이 있으면 이야기의 진실성에 의심이 갔다. 무표정한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환경에도 만족하고 있으며...'와 같은 이야기만을 하는 그녀들과 그 일의 관리자. 우린, 고개를 저어야 했다.

그녀들에겐 이야기 할 여유가 없었다. 쉬는 시간이 없어서 우리의 인터뷰를 거절하는 그녀들은, 화장실에 갈 때조차 바빴다. 일하러 가는

길을 졸졸 따라가는 우리에게 그녀는,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할 새도 없이 바빠. 일 끝나면 집에 가느라 바쁘지'라며 웃으셨다.

우리는 그녀들에게서 학교의 문제점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들의 어려움과 힘든 점만을 듣고자 한 것도 아니었다. 그녀들에게서 꼭 '무언가'를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

실은, 그녀들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할 것인지 잘 몰랐다. 그래서 만약 그녀들이 입을 연다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어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었다.

'정보작전'을 펼쳐 아무도 모르게 인터뷰를 약속 받아도 매체에 실는다는 말에 인터뷰가 취소되고, 매체에 실지 않고 이야기만을 듣겠다고 설득을 해보아도 그녀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혹은, 무언가가 그녀들의 입을 막았다.

그렇게 하기를 여러 번, 우린 어렵게,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몇몇 분을 만날 수 있었다.

그녀들의 쉬는 시간을 조개어, 우리가 준비한 몇 안 되는 질문을 들으며, 그리 길지 않은 시간동안 그녀들은 이야기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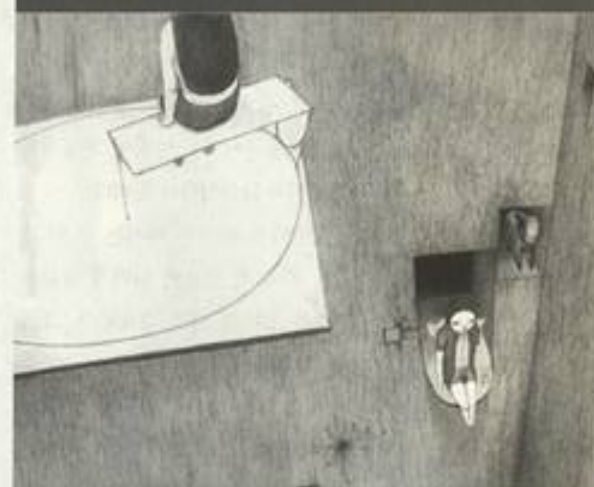
#1 꽤 즐거운 시간이었다.

한 번 그녀의 말을 꺼내기 시작하자, 그녀도 우리도 인터뷰의 형식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

학교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쩔 수 없이, 혹은 당연하게 엄마를 떠올렸다. 여기서 일하기 전에는 무엇을 하셨는지, 집에 돌아가면 무엇을 하시는지 여쭙어보았을 때, "뭘, 소두방(솔뚜방) 닦고 살림하다 일 시작했지." "집에 돌아가도 또 똑같은 일 하지.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근데 집 일이 더 힘들어. 여기서는 돈이라도 벌지."

집에서도, 사회에 나와서도 그녀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엄마 일'이라고 생각할만한 것들이었다. 엄마와 '엄마 일'을 하는 수많은 그녀들은 비슷한 시간의 크기만큼 비슷한 종류의 일을 하고 있었다.

"학교시설을 왜 그렇게들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가. 연세대 학생들인데, 담배꽂초나 생리대 처리 같은 것. 학생들은 그런 건



다 우리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애." 라고 불만을 이야기 하실 때에도 으레 집에서 잔소리를 들던 불안함이 일었다. 다만 그녀들은 그런 잔소리거리를 돈을 받고 일로서 하고 계신 것이었다. 그러한 생각이 들자 '엄마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그런 조금은 심각한 상황에 빠져버렸다. 왜냐하면 소위 '엄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일이라기보다 엄마의 생활, 엄마의 삶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소, 빨래, 설거지등과 같은 온갖 집안 일은 자식 돌보기나 남편 뒷바라지와 같은 엄마의 본분이라 여겨지는 일을 하기 위해선 꼭 해야 하는 것들이고, 결혼을 하면서 당연한 임무로 엄마의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한 일을 사회에 나와서 돈을 받고 한다... 그녀들의 삶을 채운 것은 '엄마 일'이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엄마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사회에서 그 일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고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방식이 가정에서의 방식과 달아있다는 것이다.

집안에서 엄마가 하시는 일은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엄마의 일로 강요된다. 그러나 그 일은 동시에 '엄마'라는 훌륭한 이름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발적인 애정으로 포장된다. 이러한 기제가 사회로까지 확대되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들의 노동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노동환경은 열악하다.

"월급은 차비, 용돈, 약값으로 쓰면 딱이야. 근데, 최소한 60이상은 되어야 해. 휴가도 한 달에 한 번씩 월차가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까봐 사용 못해. 그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자를 마련해야 해." 라고 그녀들은 말했다. 너무나 맞는 말이다. 너무나 맞는 말이어서, 그렇지 않은 현실에 대해 화가 났다. 엄마들이 '희생'과 '사랑'으로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이 사회에 나오면 보잘 것 없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되며(물론 가정에서라고 가치 있게 취급되고 있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더한 것은 일을 구하러 나오신 아주머니나 그녀를 고용하는 고용주 모두 그러한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솔직하고 한탄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녀들에게서 내가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떠올리게 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인터뷰가 그런. 어수선한 생각과 감정에 휩싸인 분위기는 아니었다. 물론, 그녀들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자신의 아픔과 서글픔이 떠올랐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그녀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이었다. 어디에서나 누군가를 보살피거나 감싸안아야 하는 존재였던 그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준다는 것은, 그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렇듯이 설렘과는 조금 다른 떨림을 느끼게 해 주었을 것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냄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좀더 깊이 보여줄 수 있고 이해도 바랄 수 있으며 스스로를 보듬어 안을 수도 있는 등 여러 복잡한 감정이 그녀들 스스로에게도 일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그럴 만한 기회가 적었던 그녀들이었기에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고, 웃고 하는 것은 그녀들이 밖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았다. 우리 같은 아이들이 난데없이 찾아와 그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할 때, 혹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등 가정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만한 새로운 일들이 그녀들에게 찾아옴으로써 밖에서 일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2 속되지 않은 인터뷰였다.

학교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임을 알고 의기소침해 있던 때였다.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여유롭게 청리를 하고 있는 한 여성에게 별 기대 없이 인터뷰 요청을 했고, 그녀는 의외로 흔쾌히 승낙했다.

상당히 밝고 긍정적인 그녀는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 먼저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회'의 속성과 거기에 적응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일 하면서 몸 아플 때가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만, 사회에 나오면 그런 건 다 감수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매장에 상급직원이 관리하러 나와서 이것저것 간섭하는 것은 일을 하려면 당연하거죠."

"학생들 대하면서 이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없지 않아요. 어떤 학생이냐에 따라 다르고, 근데, 기본적으로 내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받게 대하고 좋은 마음 자세로 대하면 일이 즐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녀가 일을 하면서 겪는 불편들을 자신의 긍정적인 사고로 극복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세상을 잘 모른다고 사회에 나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녀의 말 속에서, 도대체 그 '세상'과 '사회'라는 것이 뭔지.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참으로 못 마땅했다.

자신의 일은 자신이 결정하고 해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자신의 일을 상급직원이 관리하고 간섭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게 하는 것. 손님에 대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이라면 손님에게 친절과 웃음을 대하는 것이 당연한 미덕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고 '사회'인 것일까?

사실, 우리는 백화점이나 식당에서 보게 되는 여성들에게 자연스레 친절과 웃음을 기대한다. 하지만 그녀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억제하여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모습만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 그 일이 오히려 컴퓨터 조작 따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감정적인 수고가 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세상'과 '사회'는 착각하고 있다. 손님이 어떠한 행동을 할 경우라도 그녀들에게 친절과 웃음을 제공하기를 강요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 그녀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다반수다.

일에서의 피로를 '마음가짐'으로 다스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녀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그녀들의 몫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변해야 한다면 우리가, '세상'과 '사회'가 변해야 한다.

"일단 입사를 하고 수습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계약기간 따로 없이 계속 근무를 해요"

"승진은 인정을 받으면 하죠. 보통 7~8년 정도 일을 하면 승진해요."



실은, 그녀들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할 것인지 잘 몰랐다. 그래서 만약 그녀들이 입을 연다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어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었다.

세상을 아직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그녀는 우리를 걱정해주었다. 맞는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과 사회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있다.
그러나 나도 그녀가 걱정되었다.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극복되지 않는 무언가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상급직원 중에는 여자 분은 거의
없어요. 대리까지는 봤는데 그 이상은
다 남자분이세요.”

“월차휴가도 있고 생리휴가도 있
기는 한데.. 내가 쉬면 그 일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고, 다른 직원들한테
피해가 되니까 쓰진 못하죠.”

이 '세상'과 '사회'는 여성이 자
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나갈
수 있는 일을 하기엔 너무 척박하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맡고 있는 경
우가 없다. 여성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헌법에 명시되
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세상
과 사회는 다른 어떤 법 조항보다, 이
러한 사항을 더 잘 준수할 수 있게 만
들어져 있다. 많은 여성들이 국회에
전출하려고 할 때, 여성이 고위직 간
부가 되려 할 때, 여성이 목사가 되려
고 할 때, 여성이 한 회사의 대표가
되려 할 때, 이 사회는 때때로 이러

여성이 이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를 획득하려고 할 때도 온갖 부딪
힘에 맞선다. 그리고 설명, 권리를 법적으로 획득했다 하더라도 그것
을 누리기에는 눈치가 보인다. 생리휴가 역시 마찬가지였다. 회사에서
생리휴가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학교에서도
생리통으로 병가를 내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평등은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이다. 그
런 것을 그녀는 그녀가 짊어져야 하고 속으로 삼켜야 하는 당연한 것으
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 외에도 많은 '그녀들'이 그러하다. 그리고
나 역시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내면화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상을 아직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그녀는 우리를 걱정
해주었다. 맞는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과 사회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있다. 그러나 나도 그녀가 걱정되었다. 그녀의 밝
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극복되지 않는 무언가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인터뷰를 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 내용을 글로 옮기는 작업도 만만
치 않은 것이었다. 인터뷰 내용을 녹취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글
로 받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 표현하고 있는 나의 생각과 느
낌, 그리고 인용되어 있는 그녀들의 말도 어쩌면 내 것에 맞게 왜곡되
어 있는 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인터뷰한 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글을 쓰
려고 하였다. 그러나 글을 써놓고 보니 그녀의 말도 나의 말도 전혀 전
해지지 않는, 그런 싱거운 커피같은 맛이 났다. 인터뷰 내용이라고 해
보았자 질문과 답, 질문과 답, 과 같은 형식이고 내 생각도 제대로 드러
나 있지 않으니 말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인터뷰하면서 느낀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고스란히 담아내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녀들에겐 숨은 그림 같은 것은 없었다. 우리가 안 보았을 뿐
이었다. **She Said**

by 고래



노동 개념 새로 쓰기: 감 정 노 동

사람들은 일을 하며 살아간다. 삶의 전반에서 우리는 언제나 무엇이
든 하고 있다. 그러나 그 활동들이 모두 '노동'으로 불리지는 않는다.
가족의 아침 식탁을 차리는 일은 분명 어떤 활동이지만, 사람들은 그
활동을 노동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간의 다양한 활동 중 노
동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노동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
치를 생산해 내는 일을 지칭한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이기 때문에 노
동은 보상받으며 한편으로는 반드시 해야하는 일로 강제되는 측면을
갖는다.

그러나 이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
은 대체 한 사회가 '유용한 가치'라고 선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
는 것이다. 왜 아빠의 회사 업무는 월급으로 보상받는 노동이면서, 엄
마의 가사 일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그에 대한 어떤 보상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걸까. 육체적인 힘을 쓰는 일, 혹은 이성적인 사고
를 사용하는 일만을 노동으로 취급해왔던 기존의 노동 개념에는 무언
가가 삭제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주부로 대표되는 가족 안에서의 여성
혹은 서비스직 종사자로 노동시장에 편입된 여성이 담당하게 되는 감
정을 쓰는 일이다.

감정과 노동이라는 두 단어를 언뜻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고 느
낄 수도 있을 것이다. 흔히 감정은 가장 자연스럽고 개인적인 것으로

흔히 감정은 가장 자연스럽고 개인적인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종류의 노력을, 그것도 불평등한 관계의 패턴 속에서 그렇게 한
다면,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로 취급될 수 없다. 이 경우 감정을 쓰는 일
은 사회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감정노동'이다.



보기 좋은
그녀의 미소?

취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종류의
노력을, 그것도 불평등한 관계의 패턴 속에서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로 취급될 수 없다. 이 경우 감정을 쓰는
일은 사회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감정노동'이다. 현실에서 감정노동은
여성의 역할로 강요되어지지만, 비 노동으로 취급되므로 보상되어지지
않는다.

감정노동1. 엄마의 삶을 여성의 삶으로 다시 읽기

감정노동의 대표적인 예로 주부의 일을 들 수 있다. 주부의 일은 단순히 물리적인 가사노동만이 아니다. 주부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가족에 대한 '해정 어린' 보살핌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남편과 자녀에 대한 내조와 뒷바라지, 친척들의 병치레 같은 보살핌 노동은 그 수혜자에 대한 자연스러운 보살핌이기 이전에 주부라는 지위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로 요구되어 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살핌은 대개의 경우 상호 호적이지 않다. 남편과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어도, 시부모와 아무리 마음이 맞지 않거나 심지어는 이유 없는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주부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그들을 보살피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부의 보살핌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주부라는 신분에 따라 그 자발성 자체를 강요받는 '감정노동'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다.

흔한 명절 풍경을 생각해보자. 뽕뽕이 흩어져 살고 있는 아버지의 형제들이 모여 별 의미도 없는 침묵 속에서 TV만 쳐다보는 명절에 엄마는 외할머니 산소에 가보고 싶지만, 할머니 덕 부엌에서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 그냥 음식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같이 둘러앉은 숙모들과 할머니와의 대화 속에서 별로 친하지도 않

는데 애써 살갑게 굴면서 누구네 며느리는 효도관광을 보내줬다더라는 식의 은근한 요구들에 시달려야 한다. 할머니의 시비에 뭐라고 한마디 대꾸라도 해서 부엌에서 언성이라도 조금 높아진 날이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김없이 아버지의 비난이 쏟아진다. 물론 엄마는 그 비난에 대꾸할 수 없다. 엄마에게 그것은 싫지만 당연히 참아야만 하는 엄마의 일이다.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강요된 자발성은 엄마 스스로 자신의 진짜 감정들을 삭제하게 하는 것이다.

흔히들 노동의 소외를 이야기 하면서 작업장에서의 통제권 상실, 구상과 실행의 분리 개념을 언급한다. 감정노동은 여성이라는 신분에 따른 삶의 모습으로 강요되기 때문에 주부에게는 삶 전체가 작업장이다. 그러므로 주부가 겪는 노동의 소외는 한정된 작업장 안에서 단지 능력의 일부인 감정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구상과 실행의 분리 따위가 아니다. 주부가 겪는 노동의 소외는 자신의 삶 자체로부터의 소외, 자신의 인격 전체를 타인을 위해 양도하게 됨으로써 스스로를 타자화 시키게 되는 전인격적인 소외이다. 주부 우울증에 시달리는 중년 여성들의 삶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감정노동이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강요된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성 이데올로기'라는 강력한 사회적 기제가 존재하고 있는 데에서도 읽어낼 수 있다. 주부의 감정노동은 당연한 것으로 요구되어지지만 한편으로는 칭송 받고 미화되는 무엇이기도 한다. 가족에게 헌신하는 어머니 상은 드라마에서, 공익 광고에서 각종 소설과 영화에서 언제나 아름답고 눈물겨운 무엇으로 묘사된다. 이런 미화를 통해 감정노동은 심지어 초인적인 능력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의 각본에서 아들을 만나기 위해 멀리서 찾아온 어머니는 장막 뒤로 내민 손만 보고도 자신의 아들을 찾아내는 초능력자를 연기한다.



감정노동2. 그녀들의 미소는 다만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다.

여성이 감정노동의 전담자가 되는 것은 비단 가정 안에서만이 아니다.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대부분의 여성에게 주어지는 자리는 서비스 업종이다. 더구나 유명 백화점이나 은행같은, 직업정신으로 포장된 강력한 감정노동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친절한 미소로 손님을 대하는 점원은 모두 여성이다. 별로 반갑지도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끊임없이 웃는 낯을 유지해야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온종일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는 일이 얼마나 고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여성이 전담하는 서비스업은 다른 직종-소위 전문직들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가치 매겨진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직에 강요되는 감정노동은 때로는 단순히 친절하기 위한 이상의 성폭력적 위협들을 감수해야하는 일이기도 하다. 여성 점원은 '지근덕대는' 손님들에게도 여전히 친절을 유지해야 한다. 여러기의 승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고층 중 하나는 스토킹 수준으로 집요하게 '핍적대는' 손님들에게도 여전히 친절한 태도로 대해야한다는 것이다. (화를 낼 경우 그 손님에 의해 회사로 불려신고가 접수되면 승무원은 해고된다.)

감정노동3. 여성의 삶 전반에 강요되는 감정노동

여성에게 감정노동이 당연한 것으로 강요되는 것은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감정노동은 자연스러운 여성의 미덕으로 취급되어지기 때문에 여성은 일생에 걸쳐 감정노동의 수행자이기를 요구받는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만이 아니라, 전문직 여성인 경우에도 사무실 분위기를 환하게 하는 존재, 씩씩한 동료로서 회사 내 동료관계를 보살피는 역할이 기대되어 지는 경우는 흔하다. 좀 무표정하고 무뎉직한 성격의 여성은 부모, 선생님, 주변 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좀 웃어보라는 좀 씩씩해져 보라는 조언을 듣게 된다.

보살피는 일은 사적영역에서나 공적영역에서나 여성의 역할로 강요되어진다. 그 강요는 강압적인 형태이기도 하지만, 이상적인, 도달해야할 아름다운 무엇으로 그려지면서 여성의 사회화 과정 속에 녹아들어 있다. 사회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보살핌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것이 사회의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불평등한 성별분업구조 속에서 감정노동이 여성의 역할로 규정되어지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것이 노동으로 인정받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성의 삶에 이중의 굴레가 되고 있다. **See Said**



여성노동의 현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리하고 배제하는 방식은 더 이상 의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결과적인 차별을 유도하는 간접차별이라는 더욱더 교묘한 방식을 취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빈곤의 세계화.

일상적인 자리에서 노동문제를 논할 때 그것은 무성적 이미지로 다가온다. 그러나 여성의 삶 모든 부분에서 그러하듯 여성으로서, 여성이기 때문에란 수식어와 함께 따라왔던 여성 억압은 노동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가부장제와 공모한 자본주의의 기본 속성인 임금노동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가사노동을 기반으로 유지되었고, 여성 노동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철저한 분리속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왔다. 여성이 노동하는 주체로서 인정받은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산업화 이후 여성 노동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여성은 교육의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그에 따른 높은 사회적 지위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않은 젊은 세대 여성들 모두의 기대치와는 점점 모순되고 있다. 성별화된 노동 경험, 그리고 양성간 불균등한 권력관계에 기반한 경험에서 여성노동자는 남성노동자와 구별된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들의 차이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이 아닌, 여성 노동의 통제와 억압의 기제로 이용되어 왔다.

(자발적으로 보이는) 비자발적 감정 노동을 강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실제로 사회의 핵심이라고 정의되는 분야일수록 여성의 접근은 쉽지 않으며, 여성 노동은 주변적이고 영향력 없는 곳에 집중된다. 비서, 방문 판매원, 반숙련 산업 노동자 등 여성들이 차지하는 전형적인 일자리는 대개 미래가 불확실한 것들이다.

임금과 채용, 승진 교육 기회에 있어서 만연된 차별

철저한 능력중심사회란 적어도 여성에게 있어서는 허울에 불과하다. 여성으로서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 작업 능력을 갖추고도 원하는 직종의 취업 관문을 뚫기란 말그대로 바늘구멍 찾기보다도 어렵다. 취업시즌이 다가올 때쯤이면 여기저기에서 친구들의 하소연을 듣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노동시장 진입의 문턱에서부터 여성

이 겪는 차별은 일상적이면서도 동시에 구조화되어 있다.

여성은 임금 및 고용 전과정에서 다양한 차별을 경험한다. 현재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차이는 존재한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남성 노동자의 임금을 여성 노동자보다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가족 임금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임금 차별을 정당화해왔다. 가족 임금은 성별 분리의 핵심 기반이며 공/사 분리를 (남성의 일-공, 여성의 일-사) 강화시키고 있다.

승진에 있어서도 여성은 함께 들어온 남자 동기에 밀리기 일쑤고 그것에 대한 대응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차별의 양상은 성별 직무 분리 제도가 일반화 되면서 더욱더 치밀하게 나타난다. 신입사원이라면 통과예치시험 견여야 하는 일이라고 믿고 석달이 넘도록 복사와 잔심부름을 해왔다는 친구, 같이 입사한 남자 동기와 자신이 점점 차등적 대우를 받게되었을 때 느꼈던 분노,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항의조차 할 수 없었던 그때, 자신이 느꼈던 무력감에 대한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핵심적인 기술을 연마할 기회는 여성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21세기는 정보화 사회이며, 사회에서 여성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핵심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집단은 남성이고 그런 구조속에서 여성의 정보 접근망은 협소하다. 여성의 정보화 수준은 남성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고용평등법 그러나 유리창 같은 간접차별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여성의 외모를 채용조건으로 명시하는 등의 노골적인 직접차별은 줄어들었고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모성권을 공론화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리하고 배제하는 방식은 더 이상 의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결과적인 차별을 유도하는 간접차별이라는 더욱더 교묘한 방식을 취한다. 종래 성별에 따라 고용하는 성별 분리



호봉제가 폐지된 후 도입된 코스별 인사제도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강제 전근은 없으나 임금·승진의 기회와 범위를 제한하는 일반직과 승진의 제한은 없으나 해외 또는 지방으로 전근을 가야하는 종합직 중 선택하는 이 제도에서 여성의 선택은 어떤 것일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육아와 가사노동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여성의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규정들은 성별 역할 분업이나 전통적 여성관에 기초한 편견과 관행을 이용한 것이며, 외관상으로는 성 중립적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

세계화와 빈곤의 여성화

이러한 여성 노동에 대한 모든 억압은 현재 지구화로(특히 경제의 세

이 집안에서는 무려 30년 가까이 여성이 일하고 여성이 감당하는 노동의 재분배를 위해 일하는 것은 빈곤 집안에서는 시장의 힘이 적었다. 즉, 초기 자본주의는 철저한 성역할 분리에 의해 실패했다.



계화) 인해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초국적 자본의 값싸고 유동적인 노동력의 추구는 저임금 노동자인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증대시킨 측면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자리의 성격이 결코 여성에게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동력의 여성화는 고용 불안이 점점 심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전에 정규직 위치에 있던 여성 노동력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변화 대체됨과 함께, 전체 여성 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점으로 일을 그만둬야 따라 정규직 여성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 육아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이전의 위치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노동시장에 재진입시 여성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즉, 불연속적인 노동 참여 이후 여성들의

지위는 하향 이동된다.

성별화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곧 여성이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실업의 첫 희생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경제위기 이후 많은 여성들이 남성생계부양자 논리와 경제 효율성 증가라는 명목하에 노동시장에서 급격히 퇴출당했던 것을(김현미, 2000) 목격한 바 있다. 지금도 회사의 이익에 따라 정리해고의 대상으로 가장 먼저 지목되는 사람은 여성이다.

또한 경제적 세계화(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공공 복지 비용을 삭감하는 등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킨다. 축소된 국가의 책임은 그대로 여성에게 떠 넘겨지고, 따라서 재생산 노동은 여성에게 점점 더 가중된다.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 마다 '여성이어가 정으로!'라는 식의 가족이데올로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신자유주의 여성 억압적 모습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불안정한 여성 노동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성 노동의 불안정화는 여성에게 의무로 부과된 재생산 노동, 여성의 일에 대한 가치절하, 가족이데올로기, 여성노동력의 유연화 정책 등 다양한 현상들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여성은 여전히 생산현장에서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야하고 가정에서는 여전히 어머니 되기 실천을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남녀의 실질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여성 노동권 보장을 위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모성권의 보호와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사회적 재생산 기능의 남녀 분담, 여성의 재생산 노동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시장에서 소수자일 수밖에 없는 여성을 위한 이러한 특별 조치는 정당하다. 단순히 기회의 평등만이 아닌 결과의 평등까지 고려하는 사회적인 조치들은 여성 노동의 불안정한 현실 극복을 위해 절실하다. **See said**



by 모란

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대부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기본급부터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퇴직금이나 4대 보험 적용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제3세계 여성 노동:

차 단 되고

숨겨진

그녀들에

귀 기울이기

"...하루 3달러로 내 자매는 나의 블라우스를 만들어내네.
결국 그것으로 내 블라우스는 마침내 제3세계를 떠나게 되지.
바다를 건너 플라스틱 봉지에 포장되어 돌아온다지.
이 제3세계의 자매가 많아.
그리고 나는 백화점에 가서 20프로 세일하는
내 블라우스를 사네.
내 손들은 깨끗한가?"

- Sweet Honey in the Rock의 'Are My Hands Clean?'에서

"제3세계"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큰따옴표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말식 민주주의학자이자 페미니스트인 모한티가 강조했듯이, 제3세계를 이해하고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은 예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 지역을 '제3세계'로 칭하며 제한적으로 범주화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착취가 첨예하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3세계'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본의 재빠른 흐름과 그것을 손에 쥔 초국가기업의 영향력에 가장 취약하게, 가장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는 제3세계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그 녀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그녀들이 처한 현실에 분노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시급한 일이다. 제3세계 주민이고 무엇보다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은밀히, 때로는 보다 노골적으로 갈취 당하고 있는 그녀들의 일상은 결코 나의 일상과 동떨어져있지 않다.

탐스러운 장미꽃만큼이나 잔인하게

매년 발렌타인 데이가 돌아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밝고 탐스러운 장미 한 다발의 이면에는 에라도르의 여성노동자들이 숨겨져 있다. 꽃이 '모든 현실을 초월하는 낭만화된 아이콘'임을 생각하면 에라도르 여성노동자들의 착취 현실은 무척이나 모순적이다.

화산으로 일어난 기름진 토양과 강렬한 햇빛 때문에 장미를 기르기에 는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진 에라도르에 장미 농장-임업하계는 플랜테이션-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에라도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장미 수출국가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장이 에라도르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경제활동 기회를 안겨다 주지 않았는가 하며 환상이 섞인 반문을 던질지도 모른다. 실은 장미 농장과 계약을 맺고 대부분의 생산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아닌 미국에 근거를 둔 초국가기업들 이라는 것. 지역을 잠식해 들어간 장미농장 탓에 지역주민들은 다른 모든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식수와 농토가 모두 장미농장에 환원되어야했다는 것. 농장에서 일하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한달에 고작 125달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들은, 생각만큼 달콤하지만은 않은 현실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장미농장에서 일하는 70%의 노동자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에 이르는 여성으로서, 집안의 생계를 잇기 위해 일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낮은 임금에 만족해야





한다. 여성이 생계를 잇는 '가장' 이 아닐 것이라는 편견 어린 지침 때문이다. 또한 많은 여성 노동자들은 마스크나 장갑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혹은 일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맨손과 맨 발목이 노출된 채 이미 재초제, 살충제, 살균제로 처리된 장미를 분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탓에 여성 노동자들은 농약 중독으로 인한 질 출혈 및 유산의 증가를 경험하는 등 일을 살피고 장미향을 검사하는 남성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산업 재해를 겪게 된다. 하루 20시간을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어렵다. 당장 생계비를 벌어야 하는 그들로서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가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농장의 '블랙 리스트'에 오르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탄생한 예과 도르산 장미는 미국에서 비싸게는 한 송이에 8달러까지 오른다. 그리고 그 색과 향기는 여성 노동자들의 일상이 퇴비가 된 듯 특, 별, 히, 진하다.

가정부 주문 시대, '여행' 하는 그녀들

지금 당장 미국 구글,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네이버 검색창에서 'maid to order', '필리핀 가정부' 등을 쳐보자. 정말 많은 수의 웹페이지들이 '필

리핀 가정부 구합니다' 혹은 '필리핀 가정부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라며 손쉽게 '상품'을 거래하는 장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정부 '생산지'인 제3세계 국가들 중에서 필리핀은 단연코 '옴'이다. 많은 경우 그녀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떠나 홍콩, 미국, 혹은 서유럽이나 일본, 한국 등에 가정부로 입국한다. 물론 적지 않은 수는 불법 브로커를 통하기도 한다. 무척이나 구미 당기는 상품으로 보살핌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선진국'에게, 자국에서 생계수단을 쉽게 획득할 수 없는 필리핀 여성들은 적절할 것이다. 교육을 영어로 받은 필리핀 여성들은 곧잘 '영어연수를 가지 않고도 가정부로부터 잘 배울 수 있다'는 믿음 아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수출 상품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가사를 분업하지 않고도 다른 여성에게 맡기면 해결될 수 있다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제3세계 여성이라면 이와 같이 선진국 가족을 위한 감정노동에 기꺼이 수행할 것이라는 너무나 편리하고 '획기적인' 구상 덕분에, 가정부 주문은 가능해진다. 이를 두고 "전지구적 심장(심장은 보살핌과 정서를 뜻하기도 한다) 이식 수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필리핀 여성들은 선진국 가정에서 감정노동자로, 가사 노동자로 기능하면서 집 안에 온전히 속박된 삶을 꾸리게 된다. 많지 않은 임금은 대부분 가족들이 있는 필리핀으로 부쳐지게 되는데, 이 때 여성들은 자신이 필리핀에서 수행해야 할 '엄마/아내로서의 역할'을 버린 것에 대해 또 한번 죄책감을 느끼는 이중고를 경험한다. 기거 가정부로서 그녀들의 자유는 고용주인 가정의 손에 달려있으며 충분한 외출과 필리핀으로의 귀국이 좀처럼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시간은 불규칙적으로 길다. 결국 필리핀 가정부들은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합법적인 권리는 아무 것도 누리지 못한 채 어느 가정에 맡겨 그대로 '숨어' 지내게

이 된다. 이렇듯 생계를 위한 노동 착취 공장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 노동환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너무 잘 알려져 있듯, 좁은 공간에서 심수시간 동안 앉아있으면서 여성 노동자들은 요통과 근육통, 옷감에서 나온 먼지와 실밥 등에 의한 폐 질환을 앓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녀들이 '생리휴가'나 '출산휴가'를 기대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그녀들의 몸과 생수열리타는 이미 저임금 노동력으로서 저당 잡힌 채 30분 당 잠옷 한 벌을 거뒀히 만들어내야 하는 기계로 자리 잡는 것이다.

되는 것이다. 인종적·국가적 위계 위에서, '여성의 자라는 가장'이라는 가부장적 규칙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리핀 여성들을 포함한 많은 수의 제3세계 여성들은 선진국 가정으로 지금도 '여행'하고 있다.

99시간 시급에 맞서는 당신의 반액세일 셔츠

제3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자리 잡은 '노동 착취 공장'-sweatshop으로도 알려진-은 전지구적 자본이 기생하여 무럭무럭 자라는 고전적이고 '일반적인' 장소이다.

그 중에서도 아이티는 디즈니(Disney)와 게스(Guess), 한국에도 최근에 들어온 월마트(Wal-Mart)의 노동 착취 공장이 밀집한 국가로 유명하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외지로 나가있거나 혹은 비경제활동인구인 상황에서 아이티 여성들은 직접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이와 같은 다국적기업이 운영하는 노동 착취 공장에 취업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의 50% 수준이 조금 넘는 17센트 정도가 그녀들의 한 시간짜리 임금인 한편, 그녀들은 그녀들이 직접 만든 디즈니사의 어린이용 잠옷 한 벌 사는 것은 엄두도 못 낼 형편이다. 디즈니의 어린이용 잠옷 한 벌은 그녀들이 99시간 동안 일해야만 얻을 수 있을 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쓰디쓴 대가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다른 적당한 일거리가 없는 아이티의-혹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국가 경제로 인한 강제적인 '자발성'에 의해 저임금, 악조건의 직업 시장에 발을 디딜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어떤 제3세계 국가의-현실에서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경제적 선택지는 거의 없다. 스스로를 위한 교육비는 고사하고 지금 당장 양육과 가족의 생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아이티 여성 노동자들이다.

이미 의류 생산을 위한 노동 착취 공장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 노동환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너무 잘 알려져 있듯, 좁은 공간에서 심수시간 동안 앉아있으면서 여성 노동자들은 요통과 근육통, 옷감에서 나온 먼지와 실밥 등에 의한 폐 질환을 앓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녀들이 '생리휴가'나 '출산휴가'를 기대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그녀들의 몸과 생수열리타는 이미 저임금 노동력으로서 저당 잡힌 채 30분 당 잠옷 한 벌을 거뒀히 만들어내야 하는 기계로 자리 잡는 것이다.

이러한 그녀들의 손길이 나의 일상에서 멀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다. 이미 아이티에 굳건히 자리 잡은 노동 착취 공장의 주인들은 대부

분 미국 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한국 기업들이며, 그 곳에서 생산된 티셔츠나 바지는 아마도 지금 현재 나의 몸에 입혀진 상태일 테니, 너무 충격적인가?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오래된 현실이다.

그녀들의 목소리를 들어

물론 제3세계 여성 노동자들을 온전히 '피해자'의 이름으로 둘러치는 것은 그녀들이 스스로 내고 있는 목소리를 간과하는 일이다.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멕시코나 호주, 인도 등에서는 여성 노동자 스스로가 운동가가 되어 지금과 같은 현실을 고발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왔으며, 기업들과 국가 당국에 압력 편지를 넣고 전지구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여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제3세계 여성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임금을 많이 받지 않아도, 가사를 여전히 부담해도, 감정과 정서와 보살핌을 국가적·기업적 차원에서 이용해도 여전히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화의 흐름에서, 그녀들이 속속들이 밑거름이 되고 있는 전지구적 일상을 가끔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손은 과연 깨끗한가? 지속적으로 그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민해볼 시점이다.

by 고동

117명의 여성들로 이루어진 미국의 보일그룹으로 1973년 결성. 제3세계 여성과 소수 인종 여성에 대한 노래들을 불렀다.

수업 중 교수 성폭력·성차별적 발언,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교수 성폭력·성차별적 발언의 근절을 위해
수업 모니터링 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여자는 집에만 있어야 한다.

여차피 시집이나 갈 여학생이 점점 늘어나서 걱정이다.

심지어 교재가 비싸면 남학생들은 막노동하고,

여학생들은 자기한테 찾아와서 몸을 팔라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수업 중 교수들의 성폭력·성차별적 발언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π@

“왜 내가 이런 수업을 들어야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서 학교다니는건 아닌데.”
‘수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이라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비하발언...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이는 분명 여학생들의 학습의욕을 저하시키고,
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교수와 학생이라는 권력관계 속에서 학생들은 교수의 성폭력·성차별적 발언에 대한
어떠한 대응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불편함을 표현할 통로조차 없습니다.
이는 분명 일상 속에 숨겨진, 은연중에 감춰져 있는 성폭력에 대한 침묵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여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교수 성폭력·성차별적 발언 모니터링을 제안합니다.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폭력·성차별적 발언’에 동참해주세요.

하나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이렇게 함께 목소리를 키워간다면,
현재 침묵당하고 있는 여학생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을꺼예요. 모두들 함께해요. ^^

신청은 총학생회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주소 : happyfem@yonsei.ac.kr

특집

엄마와 딸, 마주 보라



이번 호 특집은 누군가의 이 말 한 마디로 시작되었습니다. 엄마와 딸은 창다울 때도 있지 만 일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사소한 일로 부딪히는 존재들입니다. 때로 큰 일로 부딪힐 때도 있지만 가족이 아닌 이에게 들었거나, 혹은 가족 중에서도 아버지께 들었다면 무시해서라도 그냥 넘어가고 마는 사소한 일들로도 엄마와는 사사건건 다투게 되지요. 집안 내에서 같은 여성으로서 동질감을 느낄 법도 하건만, 딸은 엄마가 나와 동등한 여성이라는 사실은 커녕 엄마가 나의 엄마라는 관계적 개인이 아니라 나처럼 이름을 가진 한 독립된 개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엄마의 개인으로서의 역사성은 딸에게 감지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엄마와 딸의 관계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나 엄마와 아들의 관계와 다릅니다. 개개인의 특성 차이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가정에서 그 구성원들에게 전통적으로 기대되는 (성역할이 그 차이)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호 특집에서 다른 관계가 아니라 굳이 엄마와 딸의 관계를 다루고자 하는 것은 독립된 개체로서의 엄마, 한 여성으로서 개인사를 가진 엄마와 그 앞에 선 역시 독립된 개체로서의 딸 사이에 같은 ‘여성’으로서 마주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개인사와는 관계없이 주어진 역할에 따라 그저 ‘엄마’가 되어 버린 엄마의 내면에 있는 여성과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글은 모두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글 〈엄마와 딸의 싸움은 계속 된다〉에서는 엄마와 딸의 일상적인 다툼을 제시하고 왜 엄마와는 사소한 일로 많이 다투게 되는지 엄마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글 〈엄마에게 항상 박수를 보냈던 그녀, 목소리를 내어보다〉에서는 엄마의 목소리를 최대한으로 들어보기 위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글 〈우리 엄마 새롭게 바라보기〉에서는 일상에서 각각 ‘딸’과 ‘엄마’로만 만났던 두 사람이 어느 날 개인사를 가진 독립된 개체로서, 여성으로서 만난 이야기를 적어 보았습니다.

엄마와 딸은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개인들입니다. 물론 엄마가 딸을 낳고 기른 점 때문에 각자의 역사를 가진 개인으로서 대등한 만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의 역사를 무시한 채 관계 안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로서만 서로 만난다면 공유할 수 있었던 ‘여성’으로서의 경험들도 묻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가끔은 내가 이 ‘여성’과 다른 곳에서, 다른 관계로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를 만나기 전에 그녀의 삶은 어떤 것인지, 나와 자라는 시간 외에 가정 밖에서 그녀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by 몽이

엄마와 딸의 싸움은 계속된다.

...엄마와 딸, 우리의 관계를 되짚어 보다 늘 끊이지 않는 말다툼을 제일 먼저 떠올린다. 그리고 그 시작을 더듬어 보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말을 주고받는 사람이 바로 '엄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실, 아침에 눈을 뜨기 전부터 엄마는 나에게 외치고 있다. "일어나라, 일어나. 학교 가야지! 벌써 늦었다!" 그러나 막상 일어나보면 그리 늦지 않은 시작일 때가 많다. 어떤 날은 좀 늦게 일어나 급하게 챙기고 있을라치면 어김없이 엄마의 잔소리가 날아온다. "너는 애가 났을 왜 그러니, 좀 일찍일찍 일어나야지. 나중에 사회 나가서 어쩌려고 그러니.. 등등등" 안 그래도 늦어서 속상한 순간 더해지는 이런 잔소리는 내일부터 정말 일찍 일어나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하기보다는, 단지 순간의 짜증만을 더해준다. 그렇다고 여기서 엄마에게 짜증을 부리면 안 된다. 잘한 것도 없으면서 엄마 말씀에 대들거나 한다고 구박을 당할 확률이 지극히 높고, 이런 사소한 것들이 아침부터 말다툼을 만들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흔하를 '아빠의 잔소리' 때문에 지겹다는 말은 잘 하지 않는 반면에 '엄마의 잔소리'가 지겹다는 말은 자주한다. 실제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집에 들어와 자는 순간까지 내 일상의 사소한 곳 구석구석에 관여하는 목소리는 바로 엄마의 목소리다. 더 정확하게는 '엄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라고 해야겠다. 하숙생들에게 관심이 많은 하숙집 주인아주머니나,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언니나 오빠가 대신 잔소리를 해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마의 '그것'과는 뚜렷한 양적, 질적 차이가 있다.

...엄마의 목소리를 잠시 대신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엄마의 역할을 맡은 이는 딸의 일상과 작은 예의범절에서부터 진로를 결정하는 일 등의 미래를 선택하는 큰일일까지 어쩌면 딸 자신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딸에게 충고한다. 사실 나의 엄마는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어, 내 결정을 존중하

는 편이다. 그렇지만 때로는 엄마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을 조언하곤 하는데, 그것이 엄마 자신이 어렸을 때 이루지 못한 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가 많다. 가장장적인 사회구조가 익숙하고 편한 아빠는 기실 자신이 못 다한 꿈을 딸인 나를 통해서 완성해낼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저 '여자'로서 편안한 인생을 살길 바란다. 반면 엄마는 자신에게 전적으로 불리했던 몇 십 년 전, 남자형제들과 기존의 차별적 가치관에 놀려 다 펴보지 못하고 접었던 꿈을 이제와 나를 통해 대신 이루려는 욕심이 있다. 그래서 나에게 경제학을 전공하고 애널리스트-한 때 엄마의 꿈이었던-가 되라고 하기도 하고 사법고사를 보라고 하기도 했었다. 물론 나는 둘 다 적성에 맞지 않아 거부했지만 말이다.

...그런데 엄마의 생각에는 이것이 전부가 아닌, 이중 잣대가 있다. 내가 엄마의 젊은 시절, 여자라는 이유로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뤄주길 바라다가도, 다시 나에게 '여자'로서 편한 직업'을 추천하곤 한다. 엄마 스스로 별다른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피곤해했던 공무원이란 직업에 내가 또다시 몸담기를 바란다. 여성이 기를 못 펴던 시대에 억눌려 있던 욕구를 지금의 내가 대신 채워주길, 나는 그 안에서 주눅 들지 않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내가 큰 상처 받지 않고 보호막 하나쯤 쳐둔 채 살아가길 바라는 것 같다. 이런 바람의 말바탕에는 엄마 자신이 걸었던 길에 대한 일부의 만족과 긍정적 평가로써 얻는 위안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엄마의 인생 경험에서 나온 상반된 결론일테고, 엄마는 스스로가 아닌 사회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이런 두 가지 결론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치고 충고한다. 저기에 나는 반항하며, 때로는 반쯤만 수긍하며 언쟁을 벌이는 것으로 맞대응 해왔다.

... 만약 엄마가 이런 금지막한 일에만 관여한다면 엄마

와 나의 싸움은 진작에 끝이 났거나, 있어도 아주 가끔이어서 이런 글을 쓸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엄마들엔 자신이 원하던 원치 않든 자녀의 일상을 일일이 챙겨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왔고, 나의 엄마도 그것을 거부하지는 못했다.

결혼 전부터 바로 몇 해 전까지 직장생활을 하며 나름대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바빴던 엄마였지만, 기존 사회가 딸-여성에게 요구하는 지침들을 어김없이 나에게 강조했다.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아라, 연애 많이 해봤자 여자만 손해다..." 밤늦게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늦게까지 할 일이 있는데 무조건 초저녁에 집에 들어올 수는 없는 일이다. 연애를 해서 에너지가 소모되고 감정이 닳는 거라면, 땀방 모두에게 해당이지 왜 여자만 손해인지 엄마가 생각하는 연애한 대체 무엇이길래 하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내가 항상 이렇게 따지고 나서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고 만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엄마는 "그래도 세상이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딸에게 특별히 더 요구되는 지침들을 또다시 늘어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피곤한 말다툼으로 변질되었다.

...그럼, '엄마'라는 사람은 원래 타고나기를, 잔소리쟁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도록 태어난 것일까.

이 어처구니없는 질문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좌우로 내젓고 있길 바란다. 엄마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딸의 역할에 훨씬 익숙하던 때가 있었고, 그 때는 외할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귀가 따가워 죽었다고 지금의 나처럼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나를 키우면서 '엄마'보다는 '딸'이 편하다며 맘속으로 돌아가신 외할머니께 투정을 부릴지도 모를 일이다. 또 가끔은 아무리 다그쳐도 말을 들어먹지 않는 나에게 난발머리나기도 할 것이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엄마 자신에게 지겨움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집기게 견뎌야 하는 역할을 누가 엄마에게 준 것일까. 관습적으로 '엄마'에게 맡겨졌던 자녀 양육의 의무, 혹시라도 자식 중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기면 '집'에서 애들 교육하나 제대로 못 시키고 뭐하는 거야?'라는 질책을 감당해야하는 의무에서 지금의 엄마들도 크게 자유롭지 못하다. 또, 자신의 딸을 보면서 내려게 되는 두 가지 결론을 양 손에 들고, 조금은 혼란스러워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태어나 사물을 분간하기 시작할 때부터 엄마는 나에게 그저 '엄마'로만 보였지, 엄마에게도 약한 뒷모습이 있고 때론 억압 받은 상처가 있고 못다 이룬 꿈이 있는 한 '인간'인 줄을 그동안엔 잘 몰랐다. 돌이켜보면, 알려고 크게 노력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가족간에 그 누구와도 하지 않는 얘기들과 말다툼 속에서 엄마와 딸, 엄마와 나 사이에 조금은 특별하고 질긴 끈이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이제는 절릴 대로 질리고 물릴 만큼 물린 엄마와의 크고 작은 싸움들, 그것이 왜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는지 이렇게 돌아보며 깨닫는다.

...엄마와 나는 다른 시기에 다른 젊음을 보내지만, 그 시절의 엄마와 지금의 나는 많이 닮아있다. 엄마는 사회가 주는 여성과 엄마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면서도 나만은 그 굴레에서 조금 더 자유롭길, 덜 다치길 바란다. 그러나 나는 엄마의 입장을 이만큼은 이해하면서도, 아직은 더 많이 다쳐도 더 많이 자유롭길 원하는 좀 무모한 딸이다.

그러므로 엄마와 나의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내가 그동안의 갈등을 되새기며 엄마와 나를 새롭게 보듯, 그 계속되는 싸움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길이 더 넓고 탄탄해지길 바란다. **She said** by 아옴



딸에게 항상 박수를 보내던 그녀, 목소리를 내어보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끼고 그리워하는 특정한 순간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엄마와의 두런두런 수다가 시작될 때의 그 특유의 긴장감, 그러면서 서로의 얼굴에 '씨익' 작은 웃음이 맺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각별하다. 바쁘다는 핑계로 챙기지 못한 서로의 일상에 대해 사소한 물음을 풀어내는 것부터 시작되는 그 즐거운 수다가 격한(?) 말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스스로의 이야기를 단편적으로나마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귀중한 경험이다.

그러나 엄마의 목소리를 그동안 차근차근 들어오기는 했는가. 그녀의 말-나의 일상에 '개입' 하는 조언과 안내를 포함한-에 "대체 왜..."라며 고개를 흔드는 짜증 섞인 몸짓에 혹 엄마의 언어는 묻혀버린지 오래인 것은 아니었나(게다가 엄마가 가정 내에서 도맡아야 하는 '양육하는 사람'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더더욱). 무언가 일을 벌인 답시고 집에는 매일 늦게 들어가, '대장금'을 보다 돌아온 엄마와 겨우겨우 눈인사나 하는 요즘, "오랜만에 수다나 한판 펴까?"라는 나의 겁 없는 제안에 그녀가 산중하게 말을 건네 왔다.

물론 (좀 부끄럽게도) 그 수다 한판의 이면에는 '엄마와 딸'의 관계에 대한 엄마의 생각은 무엇일까 직접 물어보겠다는 소기의 목적이 있었지만,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가 거침없이 흘러간 엄마의 멘트들은 그렇게 야심만만한 프로젝트 계획을 나를 우스꽝스럽게 진지한 척 하는 예로 만들었고, 동시에 울고 웃게 했다. 엄마의 고충과 감정노동이 곧잘 '부모', '양육하는 사람', 혹은 '균형을 잡아야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무마되면서 나는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한편으로 결국은 따끔하게 일침을 놓기도 하고 힘 있는 유쾌함이 느껴지기도 했던 그녀의 이야기는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물으려 했던 내게 외려 딸로서의 나의 자리와 몫은 무엇인가 되물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조심스레 펼쳐놓는, 다소 파편적이기도 하지만 진실한 흐름이 있는 그 이야기들이 여기 있다.

엄마와 딸, 그 빛 청산하는 관계를 되돌아보며

"엄마와 딸의 관계? 엄마는 엄마고 너를 키웠으니까 더 잘 알지.(웃음) 모녀 관계는 모녀관계지 뭐, 딸은 딸이고 근데 세대 차이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 딸 잘 들던 아이들이 지 미리 컸다고 자 잘났다고 하니까 모녀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지 뭐. 사실 둘은 애증관계, '웬수'야.(웃음) 근데, 심리학과 선생님이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부모관계는 웬수래. 알아주는 관계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한꺼번에 갇을 수가 없고 끝까지 조금씩 알아주어야 한대. 끝까지 갈등관계에 있다는 거야. 떼려야 뗄 수 없는 혈연 관계인거지.

물론 아들이 있는 집하고는 다르게 잔소리를 하지. 엄마도 봐, 다르게 자랐잖아. 너희 외삼촌이랑 엄마랑 다르게 자랐잖아. 우리 어렸을 때도 반찬 좀 남기면 "여자가 반찬을 남기면 되냐?"면서 잔소리를 들었지. 근데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으니까 너희에게는 "여자가" 소리는 안 하게 되지. 사실 너희에게 (양성평등에 대해) 특별하게 가르친 적은 없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지. 너희한테 많은 자유를 준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도록 한 거지. 딸 가진 엄마, 부모들의 태도가 훨씬 더 진보적, 덜 가부장적이고 더 개방적일 수 있어. 더 여성분적이라고, 보통 부모가 다 그래.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야. 그것은 어쩌면 심리적인 틀로 보면 약간의 합리화 같은 것일 수도 있어. 딸들이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받을 피해에 대해서 생각하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 거지. 확실히 아들만 있는 집, 딸만 있는 집에서 자란 학생들과 얘기를 해보면, 딸만 있는 집은 큰 애를 시키거나 하는

데, 아들과 딸이 둘 다 있는 집 보면 뭘 사오라 할 때나 설거지 시킬 때 딸을 시킨다든지한다는 거야."

"엄마가 바라는 바가 1부터 10까지 있으면 그것을 늘상 관찰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 부모로서 언제까지 애네들을 보살필 수 없으니까 애네가 자기 인생을 어쨌든 독립적으로, 내 맘에 들게, 불안하지 않게 보고 싶은 거지. 어떤 부모든 다 마찬가지잖아.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게 부모로서 행복이지. 그게 일종의 동물적 본능이 아닐까? 그거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보고 대학원에 가라,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라 하고 요구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교수라는 직업이 성차별이 그래도 적게 일어나는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쟁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이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엄마가 너보다 30년을 더 살았잖아.

물론 '돈을 많이 벌어서 취직이나 현실과 상관없이 딸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많이 시켰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했던 것, 특별히 내가 딸이기 때문에 더 특별히 뭔가 바라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는 거지 당연히.

왜냐하면 엄마는 돈이 없으니까 다섯 형제 중에서 딸이면 사립대는 절대 못 보낸다 그랬기 때문에 엄마로서는 억압된, 당했던 것에 비해 나의 애들에게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소망.

엄마가 대학원에 갈 때도 집에서 싫어했어. 난 지금도 그게 너무 섭섭해. 취직해서 돈 벌고 시집가면 그만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적어도 나를 다 밀어주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 그래서 엄마는 너희들을 밀어주고 싶은데 너희는 '오아악' 하는 거지. 너희뿐만이 아니야. 너희 세대가 다 그런 거지. 그리고 그렇잖아. 같은 여성이니까, 아들과도 또 다르지. 그러니까 딸은 내가 당한 억압을 겪도록 하지 않겠다 그런 게 있어. 물론 나한테도 그런 욕구가 있어. 나는 그걸 알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격렬하게 요구를 하는데 너희는 격렬하게 반대를 해.(웃음)

물론 너희는 나네 꿈이 있는 거잖아. 마음대로 내버려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누리고 싶은 건 누릴 수 있었잖아. 너희의 인생관과 나의 인생관은 다르지. 아 근데 이해해, 이해하는데. 한편으로 너희가 엄마 마음을 모르는 게, 무조건 엄마를 이해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것이 섭섭한 것 같아. 아니,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지. 어떻게 알겠어. 할 수 있어? 노력을 하려고 해도 못 하지.

그건 (어느 모녀 관계나) 공통적인 거야."

너희의 인생관과 나의 인생관은 다르지
아 근데 이해해, 이해하는데
한편으로 너희가 엄마 마음을 모르는 것
무조건 엄마를 이해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것이 섭섭한 것 같아



딸에게 항상 박수를 보내던 그녀

스스로의 감정 유보하기 - 아빠와 딸이라는 이름의 양 날개?

"집에서 갈등이 생기면, 너희 편을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리고 엄마는 균형을 잡아야 해. 특히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여자가 셋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남자를 분리시킬 수 없고 또 부모라는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어. 물론 갈등은 있지. 애편을 들어주고 싶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또 중간에 있을 수밖에."

근데 또 네 말을 들어보니까 아들이 있었다면 딸 편을 들어줄 수도 있었겠다. 아들은 당연히 아빠 편을 들어줄 테니까. 균형을 맞춰줘야지. 아빠는 소외감을 느끼면서도 가부장적으로 허세를 가지는데, 한편으로 여자들끼리 '똥통 통치' 게 되니까. 하다못해 네가 자본자본 얘기할 때 엄마랑 그렇게 하지 아빠랑 그렇게 하나? 본인도 감정표현을

못 하지만 또 그런 경험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공허감과 그런 게 대단하지. 근데 그냥 놔두면 너무너무 상처를 받게 되잖아. 위제는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

정서적 기대는 '포기', 그러나 '보살핌'은 계속 된다...

"정서적 기대? 그런 부분은 별로 많이 생각 안 해봤어. 포기했어. 다른 엄마들도 다 포기했다 그래. 나는 사실 '자급자족'이야. 실망했지? (웃음) 너나 네 동생에 대한 나의 생각은 딱 그거야.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 해서 너희가 가진 재능을 최대한, 그렇게 내가 도와주는 것. 그거야. 그것뿐이야. 그렇게 해서 살도록 노력해야겠지. 서로 간에 잠이 되면 안 되니까."

어쨌든 너희는 너희 위치를 잘 몰라. 부모들이 너희한테 잘 해주려고 하는 것 자체를 너희는 잘 모른다니까? 너희가 항상 냉정하기 때문에 엄마가 기대도 안 했던 것 같아. 항상 물~하잖아. 너와 나 간에 자매애? 전혀, 전혀 생각해 본 적 없어. 너희는 너희고, 부모는 부모야.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 선은 분명해. 엄마는 엄마고 너는 너야. 알겠지? 같은 여성으로서의 감정일 수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엄마가 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동급 같은 것은 전혀 아닌 거지. 너희는 어디까지나 돌봐줘야 할 대상이야. (웃음) 의존적이고, 보호받아야 하고 돌봐줘야 할 대상인 건데, 너네는 그게 아닌 거지. 다 컸는데 왜 그러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친구 같은 감정이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지. 끔찍하지?

어쨌든 지금 엄마가 하는 얘기들은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말하자면 엄마는 특별한 엄마가 아니라는 거지. 물론 주변 동료들은 나한테 그래. 애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극진하다고, 특별히 딸들에 대해서 극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다가도 그래. 내가

다른 동료들한테 너희들이 어렸을 적의 이야기를 하면 날 더러 '애들을 키울 때 굉장히 섬세하게 했구나' 라고 평가를 하더라구. 물론 엄마가 또 이상한 걸 잘 기억하잖아. (웃음)

평행선을 따로 또 같이 걸어가는 두 사람

"물론 네가 어른으로, 이해가 가능한 사람으로 보이는 가는 때에 따라 다르지. 하지만 결국에는 네가 머리가 크니까 엄마랑은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어렸을 때는 '웅' 하며 따랐지만,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엄마와는) 차별화가 되는 거잖아. 너는 너라는 어떤 개성을 지닌 사람인데, 엄마랑 차별성을 지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엄마는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어. 포기해야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제일 심하지 않나? 아니 그 이전을 좁힐 수 없어서 포기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 아무튼 너희가 어른으로 보인 적이 없어. (웃음) 큰일 났어. 너희가 50세 되어도 그럴 것 같아. 스무 살이나 넘은 어른인데, 밤낮 아기 취급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고, 부모는 애네가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왜 거부하나, 이 험한 세상, 할 수만 있다면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해주고 싶은데, 아마 네 친구들도 짜증이 날 거다. 아니 노상 반복되는 것 아닌가? 당장 내일 출당송을 하는데, 너희들은 항상 V배 입고 다니니까 목도리 하고 가라 그러는데 살다고 하면 딸은 왜 엄마 마음을 몰라주냐. 딸은 딸대로 엄마는 왜 구태의연하게 그러냐 해서 악순환인 거지."

근데 누구도 몰라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내가 말았어요' 한 적도 없고, 출당송 그냥 모른 척 한 적도 없고, 둘 다 평행선을 달리는 거지. 늘상 그런 말 들잖아. 80세 되어도 김 조심해라, 밥은 제대로 먹었냐, 매일 똑같은 소리 하니까 짜증이 난다는 건데...

너희들은 언제나 보살피주어야 하는 어린 아이로 보여지고, 보살피준다는데 싫다니까, 왜 자꾸 엄마 마음을 몰라주냐 하는 생각, 엄마는 더 특별히 잘 키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수다 한 판을 마무리하면서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나를 임신하셨을 때 성별을 알았었냐고 여쭙보았다. 초음파검사가 대중화되지 않은 그 시절에는 물론 먼저 성별을 아는 것이 어려웠지만, 엄마는 신기하게도 '어쩐지 딸인 것 같았다'고 하셨다. 엄마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아맞출 수 있는 초능력(?)이 있을 리 만무했지만, 아무래도 서로 교감하고 많은 것들을 앞으로 오랫동안 공유할 수 있을 딸을 기대하고 바라는 욕망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거창하게 나는 엄마에게 '조력자이다'를 외치는 나에게 엄마는 '현실을 직시하라'며 따끔한 한마디를 던져주셨지만, 그 행간에 놓여있는 나와 엄마가 같이 한 수많은 일상적 순간들과 수다들은 결코 사소한 것들이 아님을 나는 알고 있다. 특별하지 않고 일반적 일 법한 그녀의 이야기, 그러나 그것은 평행선을 걷고 있던 나에게 잠시 고개를 돌려 다른 목소리를 들어보라는 신선한 힘이었다. **She said**



by고동



우리 엄마 새롭게 바라보기

... 내가 아직 어렸을 적에, 나와 엄마는 정말 사이가 좋았다. 두 살 차이 언니 하나와 밀로 여덟 살이나 차이가 나는 남동생 하나, 이렇게 세 남매의 가운데 딸인 나는 '착한 딸'이었다. 내가 정말 착했었던 건지, 아니면 '착한 딸'이고 싶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난 집안의 모든 심부름을 도맡아하고 어린 동생을 잘 돌보고, 엄마 말씀도 잘 듣는 아이였다. 주변의 어른들은 나 같은 딸을 둔 엄마를 부러워했고, 엄마는 나를 편애했다. 그래서 언제나 서러운 것은 언니였다. 집안의 싸움은 늘 엄마 대 언니의 싸움이었고 난 언니를 이해할 수 없었다.

... 그러던 내가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던 걸 느낀 것은, 언니가 날 하루 부러듯 부러먹고 있고 남동생이 내 말을 무시한다는 것을 알아버린 후였다. 게다가 엄마 내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랬고, 요구했다. 난 당황스러웠다. 언제나 집안의 일들을 도맡아 하는 것도 나이고, 뭔가 잘못되면 욕을 먹는 것도 나란 걸 느낀 후로 난 우리 집이 정말 싫어졌다. 내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었다.

... 그 후로, 나와 엄마의 관계는 언제나 적대적이었다. 난 집에서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도망쳤고, 엄마 그런 날 미워했다. 음... 아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알고 싶지 않아도 느끼게 된다. 그 시기의 날 바라보는 엄마의 표정은 항상 날 분노하게 만들었다. 나와 엄마는 매일 싸웠고, 엄마는 내가 엄마와 분리되어 나가는 그 상황을 참을 수 없는 듯 했다. 내가 새벽에 나가면 밤늦도록 들어오지 않고, 가족행사에도 참여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내 멋대로 구는 것에 대해서 가장 못 견뎠던 것은 엄마였다. 언젠가 엄마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난 너에게 투자했으니까 투자한 만큼 거둬들일 때 까지는 너에게 잔소리하고 요구할 자격이 있어" 라고... 내 생활에 상관 말라는 나의 외침에 대한 엄마의 대답이었다. 난 나를 대상화 시켜 버린 그 한마디를 잊을 수가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시기에 나는 매일매일 자립해서 집을 나갈 그 때를 그

리면서 밤을 지새웠다.

누구나 한 번쯤 크게든지 작게든지, 혹은 잠시든지 오래든지 간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거나 힘들어한 적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나 같은 경우엔 이런 문제가 고등학생 시절 내내 계속되었으니 조금 긴 케이스인 듯 하다. 이렇게 파국으로 내닫는 엄마와 나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렇지않았던 듯 하다.

... 대학에 들어오면서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 나는 엄마와 동문이 되었다. 언니가 아빠와 동문이 되었던 것을 은근히 부러워했었던지, 엄마는 내가 엄마와 동문이 되었다는 걸 정말 기뻐했다. 그래서 나의 입학식에도 참석했고 (난 대학 입학식에 엄마랑 함께 갔던 사실이 조금 부끄러웠지만) 내게 엄마의 대학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했다. 평소에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상기된 얼굴로 대학시절의 이야기와 바뀐 교정의 풍경을 한탄하는 엄마를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나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나와 같은 대학생으로서 살았을 엄마의 대학생활을 상상해볼 수 있었다. 어렸을 땐 엄마가 결혼 전에 선생님이었던 이야기를 들어도, 또 엄마가 대학 다닐 때의 애길 들어도 엄마는 엄마일 뿐이었다. 상상을 해보려 해도 엄마는 그 때의 우리 엄마의 모습 그대로 교단에, 혹은 대학 캠퍼스에서 있었다. 그러나 내가 대학생이 된 이후, 난 훨씬 더 실감나는 상상을 해볼 수 있었다. 지금의 내가 느끼는 느낌들, 갖고 있는 생각들을 한 때 엄마도 느끼고 생각하며 이 교장을 걸었을 거라 생각하면 신기했다. 난 대학에 들어온 후로 엄마와 화해했다. 그렇지만 이 화해는 내게 엄마가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 작년엔 엄마의 졸업 25주년 행사가 있었다. 엄마는 정말로 오랜만에 대학동기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리며 들미 있었다. 여름의 햇살을 받으며 엄마 양 옆에 장성한 두 딸을 대동하고 신촌에 나섰다. 처음 뵈는 듯 내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는 엄마의 동창 아주머니와 그 딸을 만나서 우리는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언니와 날 돌려보내고 엄마는 학교로 향했다. 그 날은 밤이 늦도록 엄마를 기다려야 했다. 자정 무렵에 초인종이 집안을 울렸다. 바깥쪽에 상기된 얼굴의 엄마는, 가끔 아빠가 늦게 들어와서 하는 그대로 큰소리로 떠들면서 웃어댔다. 그리고 아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당신 같은 남자 만나서 어쩌구 지쳐구..... 모일에 나갔더니 남자 동기들은 다들 명함을 건네는데 난 뭘 줄게 있어야 말이지..... 우리가 보기엔 남자 동기들이 다들 할아버지가 되어 있어서 웃었는데 개들은 우리보고 할머니 다 됐다고 그러더라고..." 한참이나 계속되던 엄마의 넋두리. 아빠는 말이 없었고 난 웬지 속이 쓰렸다.

... 작년 겨울의 어느 날 저녁, 방학을 하고 나서 TV와 잠으로 하 세일을 보내고 있던 내게 엄마가 문득 산책하러 나가자고 제안을 했다. 나는 지금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로 섣뜻 승낙을 했다. 아마도 휴일이라고 아들과 머리를 깎으러 갔던 아빠와, 하루 종일 집에 있던 엄마를 비교했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우린 어스름 저녁의 산책을 나섰다. 그런데 그 날 우리의 산책은 성사되질 못했다. 내가 '맛있는 게 먹고 싶어'라고 이야기 하자 엄마가 날 데리고 집 앞의 호프에 들어갔던 것이다. "여기 골뱅이 소면이 맛있어"라고 말하며 엄마는 소면과 맥주를 시켰다. 음... 그 다음은 어느 드라마에 나오는 엄마와 딸의 대화가 오가... 지는 않았다. 우리는 서로 어색했다. 할 얘기도 없었다. 피엠피엠피 이어지는 대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소면이 나왔다. 맥주 한잔과 소면을 먹으면서 엄마와 난 별로 중요치 않은 이야기들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난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냥 이유도 없이 웃음이 났다. 그렇게 한 시간을 식사간을 마치고 나는 계산을 했다. 우리는 들어서만 맛있는 걸 먹고 들어가는 것을 아빠와 동생에게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전, 그러니까 지난달에 아빠가 핸드폰을 새 대나 사들고 돌아오셨다. 하나는 엄마께, 하나는 아빠께, 그리고 하나는 할머니께 드릴 것이었다. 엄마의 핸드폰에는 카메라도 달려

있었다. 아빠가 신장을 쓰신 듯 했다. 엄마 뒤편 이런 걸 사오느냐고 아빠를 구박했고, 카메라 폰에 정신을 뺏겨서 사진을 찍고만 있는 나와 내 동생을 손스럽다고 구박했다. 그렇지만 사실 가장 흥분한 것은 엄마였다. 그 날 엄마는 처음으로 문자 쓰는 법을 배웠다. 나는 새로 바뀐 엄마의 전화번호를 저장하면서 엄마의 이름 칸에 "제XX엄마" 이렇게 적었다. 아빠는 "이빠"이고 언니는 "언니"였지만 엄마는 이제 내 핸드폰 속에서 "제XX엄마"가 되었다. 그 후로 엄마한테 전화를 하거나 전화가 올 때마다 난 웃음이 난다.

... 나는 어쩌면 평생 엄마가 되지 않을 지도 모르고, 평생 엄마를 이해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럴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의 "엄마"를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지도 모른다. 내가 친구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나는 자연스레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친구와 술은 오래될수록 맛이 난다고 했다. 엄마와 나는 그 누구보다도 오랜 인연으로 오랫동안 함께 해왔다. 그렇다면 나는 엄마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엄마를 '나의 엄마'로 규정지어버렸던 옛날의 나에게서 벗어나서 나는 비로소 엄마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엄마는 결코 강하지도, 완벽하지도 않고 오히려 소심하고 외로웠다. 나는 그녀와 앞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또 다시 티격태격 싸우고 화해하고 떠돌고 웃으면서 살아갈 것이다. 우리들의 "어머니"를 새롭게 바라보자. 아마도 그녀들은 지금쯤 가정에 묶여서, 가족에게 치여서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을 끌어안고 외로워할 지도 모른다. 오늘 밤엔 엄마가 좋아하는 결리를 한 상자 사들고 들어가야겠다.

..이 글은 순전히 글쓴이의 사적인 일상을 담은 글이다. 한정된 경험을 한정된 지점에서 끌어내는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엄마와 딸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는 당연히 없으니 말이다. 다만 이 글에서 어떤 작은 울림이라도 느꼈다면, 아마도 당신이 아직 한번도 써보지 않았을, 엄마와 나의 이야기 만들기 쓰기를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See Said** by 지현

현재 학칙개정 소위원회가
1차 회의만 열린 상황입니
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중
요 조항들이 교수 위원들에
의해 식제되고 있습니다.
반성폭력 학칙의 진정한 의
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
생측 요구안으로 학칙을 개
정해야 합니다.

반성폭력 학칙개정 - 학생측 개정안 실현

반성폭력 학칙은 00년도에 제정되었지만 고쳐야 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반성폭력 학칙개정, 무엇이 개정되어야 하는지 한번 볼까요?



학칙개정 1

성폭력 가해자의
지위변동과 무관하게 징계는
계속되어야 한다



학칙개정 2

교수성폭력 특별조항 신설



학칙개정 3

2. 차. 가. 예. 도 성폭력!
2차가에 징계는
파해지 보호를 위한 것.



학칙개정 4

성폭력 상담실 독자성 확보!

학칙개정 5 대책위 교수선임에 학생의결권 보장

<대책위 규탄>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없는 대책위 @m@



<대책위 규탄>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대책위 정말 대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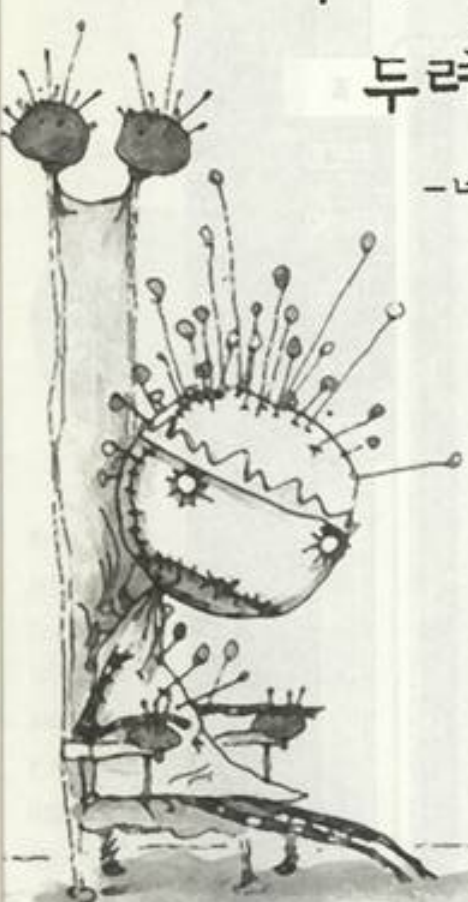


대책위 교수선임에 학생의결권 보장하라!



누가 성폭력을 두려워하는가

-너 정말 예민하구나



'성폭력'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혹은 '성폭력'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집단은 무엇일까?

최근 나는 모 여자중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하고 있다. 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장선생님의 특강이 있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중심된 이야기는 요즘 쉬이 이야기 될 법한 '학교 봉괴' 혹은 '교권 위기'에 대한 이야기이다. 어떤 답론이든 '위기'로 이야기 되는 것들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를 혼란시키고 분열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회문제'로 명명되는 것들이 사실은 그저 시시껄렁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교권 위기'에 대한 답론도 비슷할 수 있다. 예전에는 꽤나 자신이 '권위' 있었다고 생각하던 교사들이 이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위기'라 하는 것이다. 무엇이 '위기'인가. 학생들의 '카메라 폰' 때문에 맘 놓고 학생들을 체벌할 수 - 체벌이라는 교양 있는 단어가 부적합하게 여겨지는 '배는' 교육현장을 많이 보지 않았던가 - 없어진 것이 위기인가. 갑자기 수업 중에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당장 '112'에 신고할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 위기인가. 대체 무엇이 '위기'인가 혹은 그래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의 문제는 조금 미루어 두고, 이 '위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말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교사의 권위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이야기의 예로 신기하게, 생동감 있게 사용되는 것은 '성폭력'이다. 학생이 명찰을 비둘기 달고 있어서 그 것을 바로 달라고 만져도 '성폭력'이라고 하고, 어깨를 만져도 '성폭력'이라고 하고, 뒤편 손에 닿으면 '성폭력'이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교사 권위의 위기라고 이야기 되는 것들이다.

요즘엔 mp3에 녹음기능이 있어서, 애들이 선생님 말하는 것을 녹음하기도 한다. 카메라로 찍으면 표시라도 나서 알지만, 녹음은 정말 아무도 몰래 하는 것이다. 무슨 말도 편하게 못한다. 라는 이야기 역시 같은 맥락에서 교사에 의해서 발화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성폭력'이라고 갖다 붙여서 교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나쁜 학생'이 떠오르는가? 요즘 애들은 정말 싸가지가 없군. 이라는 생각이 드는가? 이제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기 위해서라도 몸에 손을 대지 못한다니 정말 개탄스럽군 이라는 생각이 드는가.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찬반이나 체벌이 금지되어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교사의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남의 몸 - 학생 -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이야기는 잊지 말아야 한다. 명찰을 바로 달라고 굳이 직접 달아줄 필요는 없다. 말로 해서

듣지 않는다고 굳이 직접 손을 댈 필요도 없다. 사실 이 말을 한 교사가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황에서 '명찰을 바로 달지 않는 학생들의 모범적이지 못한 행동'이 아닐 것이다. 자신이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꽤나 확고한- 행한 행위가 '성폭력'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두려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만져도 성폭력이라고 한다'라는 이 말 자체는 하나의 은유이면서 동시에 실제이기도 하다.

저드랑이 안 쪽으로 손을 넣어서 팔을 꼬집는 체벌, 치마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엎드려뺨치 시키는 체벌, -하복을 입었을 경우- 두 손을 들면 배꼽이 다 보이게 되는 상의를 입고 손등에 시키는 체벌, 그리고는 속옷 - 주로 메리야스라 불리는 속옷을 한여름에도 입을 것을 강요당한다 - 을 입지 않았다고 더 혼나야 되는 상황, 막대기로 가슴을 찌르는 체벌, 책상위로 올라가게 시켜서 종아리를 때리는 체벌, 등등등

모두가 한번쯤 당해봤을 혹은 봤을 체벌들이다. 이러한 학교 현장에서 쉽게 보았던 체벌들이 학생들에게 두려웠던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 정말 소박하고 순수하게 육체적 아픔 때문이었을까? 학생들이 몸의 아픔보다 더 피하고 싶은 '수치심'은 어떤 종류의 것이었을까? 팔 안쪽에 닿는 교사의 손이 소스라치게 싫었던 그 기억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체벌이 성애화 되어 있다는 말은 사실 새삼스럽지도 놀랍지도 않다. 어떠한 종류의 폭력, 그리고 여성에 대해 가해지는 압력이 성애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지 이것이 '교육적 목적'이라는 말로 '사랑의 때'라는 말로 지속 시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체벌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요인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생각 된다-을 '교권의 위기'나 '학교의 붕괴'로 몰아가는 것 역시 문제라는 것이다. 교권의 위기로 이를 명명하는 순간, 성애화된 체벌 혹은 성폭력의 문제는 사라지고, 지켜져야 하는 교사의 권위와 일탈적인 학생의 대립 구도만 남게 된다. 이러한

답론은 '청소년'에 대해서 영 못마땅하기만 한 기성세대의 분노가 함께 힘을 실어준다. 그리고 '나 때는 저러지 않았다'라는 별로 근거도 아닌 근거가 강한 힘을 발휘하여 모든 것을 정당화 시켜준다.

기존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남성들, -학교에서는- 교사들은 이제까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문제'로 여겨지는 이 상황이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간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가진 권위와의 발칙한 '도전'으로 여겨질 것이다. 신정후 교수의 성희롱 사건 -흔히 서울대 우조교 사건이라고 알려진- 당시 3000만원 배상 판결이 가져왔던 전사화적인 패닉 상황은 이와 다르지 않다. 그저 친하다는 의미로 손을 잡은 것, 뒤에서 안은 것, 농담 한 번 한 것이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이다. 이제 여학생들이 교육현장에서 비밀비재하게 발생 하였던 체벌을 '성폭력'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렇다고 모든 학교현장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성폭력의 예방과 처리에 힘쓰게 되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성폭력의 문제를 '교사 권위의 위기'로 전환시키며 덮어두려는 막강한 담론들 속에서 오히려 문제는 지속중이다. 그저 끝없이 성폭력에 대해서 존재하지만 없는 것으로 만들거나, 있되 별 일 아닌 것으로 바꾸어 회화화하거나, 과잉되게 조심하는 척 할 뿐이다. 성폭력에 대해서 그저 '존재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발 빠르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이 엄청난 노력은 자신의 권위가 흔들림을 감지한 가부장들의 두려움에서 기인한다. 이제까지 성폭력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여성들에게 쏟아진 비난은 '예민하다'였다. 하지만 정말 '예민하게' 성폭력을 바라보고, 말하는 집단은 다름 아닌 성폭력을 '가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다. 이들에게 다시 물어야 할 것 같다.

"너 정말 예민하구나!"

She Said

by 여량 rain@yonsei.ac.kr 명량한 페미니스트

학교에서 죽다 - 당신은 학교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습니까?

아직 수능을 보기 전에 한 선행의 체험담을 전해 들었다. 모든 시험이 종료한 후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수능은 그래도 한 번은 볼 만 한 것이라고.

수시에 합격해서 평소에 나오던 성적보다 훨씬 낮은 성적을 합격선으로 보장받은 나는 아무래도 시험 후에 그녀만큼 진지한 느낌을 가지지는 못했다. 시험 본 직후에 '예, 이제 수능이야? 모의고사 같다'는 허무한 섞인 말들이 교실 곳곳에서 튀어나온 것을 보면 딱히 그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말이다. 생각보다 열악한 시험 환경에 질려서이기도 했고 그저 실감이 나지 않아서였던 것 같기도 하다.

내가 눈물을 흘린 것은 집에서 그야말로 요양하며 지낼 때였으니 수능이 끝나고 한 달은 죽히 지나서였다. 다니기 싫었던 학교를 고지식하게 졸업까지 해버린 후유증이었던가, 그때 나는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이것저것 훑어가며 불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 그녀의 사랑>은 -우리나라에는 만화책은 <그 남자, 그 여자>로, 애니메이션은 <비밀일기> 등의 제목으로 나와 있다- 그 와중에 처음부터 아니고 중

간부터 대중 돌려 본 애니메이션이었다. 그저 무심히 끌려서 재생한 에피소드는 주인공인 유키노와 아리마가 사귀기 시작한 후 성적이 떨어지자 학교 측에서 양측 부모님을 소환한다는 내용이었다.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해 헤어지게 하라는 교사의 권고를 그 둘의 부모님들은 아주 멋지게 받아친다.

"그 나이 때의 하루는 어른이 된 후의 10년보다도 값진 시간입니다."

그저 상투적인 말일 뿐이었건만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 아마 공교육과 영원히 이별하는 시기였기에 그랬을 것이다. 아쉬워서 아니고 거기서 보낸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이 아까워서, 그 나이,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에 나는 매일매일 뛰어나오는 욕지거리를 다시 주워 삼키며 대학에 가도 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견뎠었다. 그런데 그 하루가 어른이 된 후의 10년보다도 값진 시간이라면? 끔찍한 말이었다. 나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학교 다니기를 매우, 매우 싫어했으니까.'

나는 해야 할 수도 없이 많은 이유로 학교가 싫다. 학교는 사회의 무책임한 축소판이니 싫은 이유를 해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학교를 싫어하는 아이였다. 때때로 누군가에게, 특히 엄마에게 고통을 호소할 때 가장 내가 많이 들은 말은 '왜 너만 그래?'와 '다른 사람도 다 그래'였다. 전자는 나 외의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않으니 내가 별 것도 아닌 일로 시끄럽게 굴고 있다는 뜻이었고, 후자는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의 고통을 느끼니 그 일은 누구나 당연히 겪어야 하는 문제라는 일이라는 뜻이었다.

"누가? 누가 그런 말을 해? 누가 다 괜찮다고 해? 엄마가 말하는 그건 대체 '누구'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엄마에게 물었고 엄마는 그저 '다들, 너만 빼고 다들 그러는데.'라는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그것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남학생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목소리가 큰 몇몇 남학생들이었다. 그들의 의견이 '전체' 의견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다른 의견들을 무화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학교도, 학부모도, 많은 학생들도 그들의 발화만을 대표성 있는 의견으로 인정했다. 다른 의견들은 그 수에 관계없이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소수의 의견'으로 치부되었다. 다른 이들의 불만은 '그들 자신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나약하기 때문'이고 '원래 성적이 좀 까탈스럽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학교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적인 문제였으며 따라서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야 할 문제였다. 그 와중에 하물며 그 '누구'들에 의해서 수업 시간에 버젓이 자행되는 음담패설과 여학생들에 대한 폭행, 그리고 등급 매기기 등은 문제가 될 리가 없었다. 세간의 평가에 의하면 그들은 '리더십이 있고 활발하고 개방적이며 또한 유연하고 사회성이 있는 좋은 남학생들'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공식 마스크'나 다름없었다. 그들의 의견이 '우리'의 의견이었고 그들의 분위기가 '우리'의 분위기였으며 그들의 불만이 '우리'의 불만이었다. 그들 외의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의 존재는 답론 안에서 사실상 무화되었다. 그것은 무척 괴로우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인상 깊은 경험이었다.

졸업한 지금 더욱 재미있는 것은 졸업 후의 '기억'이다. 시간이 흐른 후에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는, 많은 사람들이 '추억'이라 부르는 그것 말이다. 그것은 마치 학교에 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쯤처럼 남아있었다. 가끔가끔 만나는 졸업한 여학생들에게 남아있는, '우리'가 했었다고 이야기되는 '기억'들은 사실 그들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었다. 많은 졸업생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물론이고 여학생들 몇몇만 만나는 자리에서도 그 '유쾌하고 기상천외하고 재치 있고 기막히게 멋지고 대단하고 때로는



그것은 남학생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목소리가 큰 몇몇 남학생들이었다.

그들의 의견이 '전체' 의견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다른 의견들을 무화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학교도, 학부모도, 많은 학생들도 그들의 발화만을 대표성 있는 의견으로 인정했다.



진지하고 항상 끈끈했던 '우리'의 이야기는 '즐거운 추억, 혹은 일종의 영웅담으로 이야기된다. 시

종일관 '이 얼마나 멋진 학교생활이었는가!'를 강조하는 '우리'들은 즐거운 추억의 공간으로서의 학교를 그리워하고 (비록 금방 꺼지는 말뿐인 애교심으로 그칠 때가 대부분이지만) 애교심으로 불타는 존재들이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강압적이었고 성차별적이었던 학교 체계, 수많은 이들이 자행했던 그 무수한 언어적·신체적 성폭력, 여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학부모·교사·학생 가리지 않고 가했던 편견으로 점철된 상식 이하의 발언과 소문들-많은 예를 들고 싶지 않다. 계집애들이 공부하는 잘해서 뭐 하나는 말까지 나왔으니-은 없다. 말하자면, 그런 것을 경험한 졸업생은 공식적으로 '없다.'

이쯤에서 나는 묻고 싶다. 당신은 학교의 주인공이었는데? 당신은 학교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는데?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우리'의 경험으로 가지고 있는가? 당신의 경험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인정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그 곳, 학교에 존재했는가?

〈괴짜 가족〉이라는 (개인적으로 그다지 권하지 않는) 만화에는 짧은 에피소드로 '존재감 없는 아이'가 나온다. 만화에서 그 아이는 학기가 시작되고 몇 달이 지나도록 반 학생들이 그 아이와 한 번이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숨바꼭질을 하면 그 아이가 눈앞에서 손을 흔들어도 존재감이 없기에 슬레가 찾지 못하는, 존재감이 없는 것을 넘어서 아예 보이지조차 않는 인물로 그려진다. 재미있게도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에는 그 아이 이름을 딴 별명을 가진 학생이 있었다. 아마도 그녀가 학교에서 특별한 일 없이 남의 입에 그다지 오르지 않는 생활을 했기 때문인 듯 하다. 모두가 그

녀를 별 다른 악의 없이 놀렸고 그녀는 일약 그 학교에서 '존재감이 없는' 정확하게 말하면 없었던. 그녀는 그 놀림으로 존재 사실을 '인정' 받은 것이니- 단 한 사람'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 그녀도 그녀가 속한 학년의 다른 학생들도 졸업했고 나는 뒤돌아서 생각해본다. 여학생들조차 그녀를 존재감이 없다고 놀렸지만, 목소리 큰 아이들과 함께 그녀만이 그 곳에서 존재감이 없는 유일한 사람인 양 즐겁게 놀렸지만, 그녀들 또한 그렇게 존재감이 뚜렷한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그녀들의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지 못했고 그녀들이 말하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실 그녀들은 행위자도 경험자도 아니었다고. 그녀들과 나, 정말로 '우리'라고 칭할 수 있는 주체들의 행위와 경험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하고 주관적이고 특이하고 때로는 신경질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하나의 멧뚤한 담론을 형성하기는커녕 공식적인 기억에서 삭제되고 이제 우리 자신의 기억에서조차 열심히 뒤적여야 겨우 튀어나오는 불유쾌한 파편이 되어버렸다고. 그렇다면 그런 그녀들, 그리고 나는 그 곳에 진정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She Said**

참조

저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부 공학을 다녔고 다니는 중이기 때문에 공학을 다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글은 그다지 와 닿지 않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어느 교육기관도 언급했다시피 쓸 수 없는 이유로 명렬히 싫어했지만,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학교'는 그 중에서 가장 여학생의 비율이 낮았던 '고등학교'이고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문제는 공식적인 모든 것에서의 여성 경험의 배제입니다. 대체 이 글을 읽기로 결정한 것은 제 상황이 다소 특수할 수는 있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공식 기록, 공식 기억에서 여성의 경험이 배제되는 것은 결코 특수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아리나 학회에서



단단

98학번으로 사회적 심리학을 전공하고 여성학 자치도서관 페미니티에서 활동한 김이영입니다. 온 줄게 여성주의를 만나, 오랜 꿈이지만 막연하기만 했던 만화가 되기의 목표와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반가워요.



대일이 34 한판 바쳐거요!



연구? 연구!

연극? 연극!

잘 만들어진 공연 한 편은 나쁜 삶에 자극이 되고, 일에 대한 열정을 일깨워주며, 다시 일상을 살아갈 에너지를 채워준다. (물론 이 한 번의 짜릿함을 위해 한동안의 긴축재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말이다.) 게다가 이 짜릿함은 중독성이 있어서, (물론 이 한 번의 짜릿함을 위해 한동안의 긴축재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말이다.) 게다가 이 짜릿함은 중독성이 있어서, 한번 그 기분을 알고 나면 몇 번 공연 고르는 것에 실패하고 공연 내내 졸다가 나오는 일들이 있어도 또다시 공연장을 찾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연극은 처음이었다. 그렇게 공연하는 것과 보는 것과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으면서 연극은 웬지 너무도 먼 당산이었다. 주로 내가 열광했던 것은 무용 공연이나 뮤지컬이었지 연극은 아니었다. 많이들 생각하듯이 연극은 웬지 어려울 것 같고 지겨울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었는데 웬걸, 연극으로 인생을 맛본다는 것이 이런거구나 싶었다. 바로 이 '19 그리고 80' 을 보고 말이다.

늘 새로운, 늘 깨어있는.

이 연극은 80세의 할머니가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 너무도 순수한, 하지만 삶에 대한 지혜가 넘쳐나는 사랑스러운 할머니, 모드, 이 할머니를 한번 만나면 빠져들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녀의 삶 자체에 인생의 철학이 녹아있고,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가슴을 쿵쿵 찌르며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지를 말한다. 그래서 하루에 한가지씩 새로운 일을 하면서 사는 게 그녀의 신조이다. 지난날 글에서도 해보지 않은 일들, 못해본 일들을 조금씩 저지르면서 살면 더 신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나에게서는 처음으로 맡게 된 칼럼에 첫 글을 쓴 것이 새로운 일이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하지만, 하루에 한가지씩 아주 작은 일이라도 새로운 일을 저지려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단지 신나고 재미있어서만은 아닌 것 같다. 여성주의자로, 혹은 다른 정체성으로 나를 이롭게 하고 살아가면서 미치지 않고 살기 위해서 무뎌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전에는 세상에 대해 더 날카롭고 더 비판적이었지만 하루하루 "그렇지, 뭐.." 하며 넘겨버리는 일들이 늘어간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돌아서자마자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게 되었다. 이러다가는 10년 후 어느날 문득 내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서럽고 또 화가 나지 않을까 싶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늘 새로워지고 깨어있기 위해서 아침마다 주문이라고 외워야 할 판이다. (정말, 매일 아침 주문을 외워볼까?)

• • 아름다운 80

19 그리고 80

19 그리고 80
많은 이들은 19세의 젊은 남자와 80세 할머니의 로맨스에 더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19세의 해물드와 80세의 모드, 모드가 등장하기 전, 해물드의 이야기가 펼쳐질 때만해도 어떤 로맨스가 가능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크다. 모드가 등장하기 전, 해물드의 이야기가 펼쳐질 때만해도 어떤 로맨스가 가능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크다.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드, 박정자가 무대에 나타나는 순간, 모든 것을 잊고 그녀에게 빠져들게 된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에 집중하느라 미안하게도 해물드는 쳐다볼 틈도 없다. 아기같이 순수한 모드의 캐릭터는 결코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순수함이 인생의 되돌아보는 거울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린다. 그리고 배우 박정자! 무대 위에서 박정자는 사라지고 모드만 남는다. 완전히 배역과 하나가 되어 박정자라는 인물은 사라져버리는 경지라니..

젊음, 늙음, 그리고 죽음



80이 될 때

80이 될 때
이 19 그리고 80은 박정자가 80세가 될 때까지 박정자만 제외하고 매년 연출, 무대, 배우가 바뀌며 올해가 그 두 번째 무대였다. 그녀가 80이 되어 마지막 19 그리고 80을 하게 되었을 때까지 나는 해마다 그녀의 무대를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80이 되었을 때, 나 역시 매년 무언가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아직은 그 무언가를 찾고 있는 중이지만, 그 일이 무엇이든 한 해 한 해 나를 되돌아보고, 또 계속해서 신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일이었으면 한다. **See Saw**



by 흐름
 여성주의자치언론 "두입술"에서 글쓰고 책만들
 기를 배웠으며, 여성주의퍼포먼스집단 "퍼포먼스"
 에서 몸으로 말하기를, 여성주의밴드 "아직"
 (2nd 기타)에서 함께 만드는 음악을 배우고 있
 는 중. 여성주의와 문화라는 두 흐름을 삶 속
 에서 연결시키려 고민 또 고민.



본지의 생각과 전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미있게, 또는 외람되게 미디어 알기

- 총선맛이편

콜록 콜록콜록콜록, 으에 팽 이, 힘들다. 긴 겨울 큰 탈 없이 그냥자냥 대강대충 이
링공대랑공 보내놓고는 봄감기에 아연 한 달 가장 완전히 당하고 말았다. 그 어떤 감
기가 괴롭고 귀찮지 않겠느냐만, 이번 감기는 정말 초절정수파악질특A급대박강력바이
러스에 의한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장하고 독하니 비현자여러분을 남애기
라 여기지 말고 말하 유의하시길, 그리고 한자여러분을 부디 어서 쾌차하시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이렇게 감기가 무고한 사람들을 습격해 기침콧물발사제를 풍풍 마구 쏘아대든 말든
시간은 초연하도 흐르고 흘러 어느덧 4월이 되었다. SHE SAD 2호가 나왔을 즈음엔
이미 중순경을 지나 이른바 찬란한 봄의 절정이 코앞에 성큼 다가와 있지 않을까 싶다
(아, 진부한 표현이다. -- 욕하려면 욕해라). 어느 새 햇볕도 많이 따스해졌고, 여기저
기에 꽃들도 마구마구 피었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졌다. 4월, 바야흐로 봄,
봄, 봄, 봄이 왔어요~~?인 것이다. 우리의 마음 속에도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4월이다. 4월이 무슨 달인가. 마음껏 거짓말해도 용서가 된다는 요상한 관
습을 방패삼아 악담과 덕담이 오가는 만우절이 있는 달이고, 우리강산 푸르게푸르게
가꾸자는 식목일이 있는 달이고, 재학생들에게는 중간고사의 달일 것이고, 나에게서는 프
로야구와 메이저리그가 동시에 개막해버린 반갑고 즐거운 달이다. 옹하하하 첫 매년
4월이 다 그렇지 뭐 특별한 게 있나? 라고 궁얼거리고 있는 저 분, 잠시만 기다려 보
시라. 올해의 4월은 예년의 4월과 좀 다르다. 왜냐하면 올해의 4월에는 17대 총선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은 매우 중요하다고들 한다. 지역주의 청산, 부패정치인
척결, 불법선거 추방, 진보정당 약진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온다. 다들
중요하고 좋은 얘기가. 그러나 이번 총선거에 대한 이슈들 중 가장 쉽
게 또 자주 이야기되는 것은 아무래도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아닐까
싶다. 모모모 정당의 대변인이 모두 여성들로 바뀌어지고, 한 여성 의
원이 모 정당의 대표로 선출되고, 또다른 여성 의원이 또다른 모 정당
의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여풍', '우연파워', '정치역사의 새로운
장', '여안천하시대 도래', '여성정치의 르네상스' 등등 온갖 번지르
르한 말들이 갖다붙여지고 있다. 재목만 보면, 정말 뭔가가 일어날 것
만 같다. 두근두근.

〈여성의 정치 세력화〉라는 문제 자체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개
미 배꼽만큼도 없다. '여성이 하는 정치'와 '여성주의적인 정치'는 당
연히 다르다. 여성이 하는 정치라고 해서 그것이 여성주의적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양적 증가-여성의 권익 신장'이라는 공식이 100% 성립한다는 보장 혹은 확신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아
무리 훌륭한 개인이라도 기존의 정치 조직에 속해 있다면 꽤 많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웬만하면 많은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도 들고, 어떤 여성인가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 여성이 속해 있는 조직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임튼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만 할 분
답 따위는 절대 나오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언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보자. 먼저 여성의 정
치 세력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언론 보도들의 구성이 매우 비슷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기승전결 구도에 따라 이야
기해본다면, 기: 17대 총선에서 여성이 대두되고 있는 배경, 승: 여성 정치인들의 등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 전:
이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혹은 우려적인 지적, 결: 그렇다면 여성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이렇게 요
약할 수 있겠다. 내용들도 하나같이 그게 그거고 요게 요거고 고밥에 고나물이다. '여성'이 조직의 '정'을 맡게
되었다는 점과 후보로 출마한 여성의 '수'가 증가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여성들이 기존의 부패한 정치 세력과
달리 깨끗한 정치를 해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찬 기대를 잠시 한 후, 그러나 과연 현재의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인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어쩌고저쩌고, 따라서 여성들은 이러이러한 점에 더 신경써야 한다... 운운.

현재의 상황이 비관적인 가장 큰 이유로 많은 언론들은 〈여성=얼굴마담〉이라는 공식을 든다. 바로 앞에서는 여
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능력있는 여성들(도대체 그 '능력'의 기준이란 무엇인지, 또 누구의 것인
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 참고 넘어가준다. --)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들의 정치적 역량
도 성장하고 있다고 한참 얘기해놓고는 갑자기 뒤로 핵 돌아가 여성은 아무리 그래봤자 얼굴마담일 뿐이란다. 그
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총선을 앞두고, '명망가 여성'이 '정계에 의해' '박업'되는 현상을 비교는 우스갯소리라만
서 〈'너, 아직 간택 안 됐니?' '그러는 너는 어쩌하여 승을 입지 못한 거니?'〉라는, 하나도 웃기지 않은 소리나
하고 있었다. 간택에 승은이라니, 여성 후보들이 장금이 친구 연생이란 말이나? 여성 자신의 역량과 능력은 다들
어디로 숨어버렸나 보네. 결국 중요한 건 그녀들을 박업해주는 '정계=남성'이란 말이지? 흥! 결국 여성은 좀
유명하고, 남성 정치인들과 친분도 좀 있고, 그들 눈에 좀 띄어야만 은혜를 입어 후보로라도 나갈 수 있다, 는 얘
기가 하고 싶은 것 아니냐? 243개의 전국구 중에서 몇 군데나 나간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신의 업무를 얼마나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가의 여부로
평가받아야 할 여성들이 사생활이 어쩌니 얼굴이 어쩌니
웃음이 어쩌니 파워로 도마 위에 오르고,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도 얼굴바담이라는 소리나 들으며,
아무리 잘난 여성이라도 남자 눈에 띄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등등 온갖 '못되먹은' 얘기를



▲ 여성정치인의 웃자람이나 분석하고 있는 기사

어쨌든 백번 양보해 그래, 그게 한계다, 라 치고 넘어가 보면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여성들이 명실상부한 정치의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해 이런저런 주문을 하시는 전문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 인생들 하세요 전문가 여러분들이 백가지 천가지 만가지를 얘기했다 치더라도 결국 신문에 실리는 것은 기사가 택하는 몇 가지 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말씀을 찾아보면, 대표적인 것이 1. 발바닥부터 스스로 성장해야 한다. 2. 남성들의 시혜에 기대려 하지 말아야 한다. 3.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살리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 세 가지이다.

문제는, 여성들이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은 채 '여성 개인'의 노력으로 모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성들이 정치적 기반을 쌓는 데 큰 걸림돌이 되는 현재의 정치 현실과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여성의 정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텐데, 왜 앞의 얘기는 쏙 빼고 '그냥 무조건 네가 열심히 해'라고 하는지.

게다가 남성들의 시혜에 기대지 말라니,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슨 시혜를 줬다는 거냐? 어서 육하원칙에 의거해 말해 봐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시선과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어 온 수많은 여성들, 열받는다. 시혜라니 시혜라니, 아까는 얼굴바담이 없어서 픽업이 저때서 하더니 이제는 '시혜를 바라지 마'라고? 어찌아쉴까나.

한참을 자래놓고 결국 나오는 얘기가 '여성스러움을 잃지 살려'란다. 참으로 사람 할말 없어진다. 심지어 모 신문에서는 '여성 정치인 빅' 라면서 '모씨는 아담한 체격을 보완하기 위해 부드러운 중간 톤의 색깔을 쓰시고 모씨는 머리에 볼륨감을 주어 여성적 매력을 첨가하고 모씨는 우아한 이미지이므로 파스텔톤을 시도해보시고.' 라는 친절할 조건까지도 한 바 있다. 이거 참 자면이 아깝다. 예헤라다야.

자신의 업무를 얼마나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가의 여부로 평가받아야 할 여성들이 사생활이 어쩌니 얼굴이 어쩌니 웃음이 어쩌니 파워로 도마 위에 오르고,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도 얼굴바담이라는 소리나 들으며, 아무리 잘난 여성이라도 남자 눈에 띄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등등 온갖 '못되먹은' 얘기들이 2004년 4월까지도 버젓이 활개치고 다니는 고라지 희망찬 기대 살짝 던져주는 척 하다가 결국엔 '아직은 멀었어'라고 고개 설레설레 젖는 자들을 보고 있노라니 멋있던 기침이 솟구친다. 4년 후 18대 총선에서는 없으리나? 전망, 뭐 그다지 밝지 않다. 흑흑 See Syd

by 늘

자난달 자기소개는 잊어주세요
흑흑 제가 안냈어요 흑흑 부끄러워라

행복한 여성주의와
함께하는 이야기
3

5월

셋째 주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2회 섹슈얼리티 문화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니쁜한 햇살과 푸릇한 공기 속에서
우리 모두 함께 즐겨보아요 ^^

희망으로 가득찬 미치광이

수잔 브라이슨, 「이야기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

성폭력을 말하는 것은 어렵다. 성폭력을 듣는 것도 어렵다. 「이야기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를 읽었을 때 나는 성폭력이 이렇게 '쉽게' 씌어질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이 책은 한 강간 사건이 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작용하는 과정과 피해자가 겪게 되는 트라우마와 그 치유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글을 쓰는데 있어 꽤나 재주가 있다는 사실 이외에 아무 의미도 아니었을 것이다. 단지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내가 그동안 접했던 성폭력 이야기들은, 그것이 자신의 경험일 때는 특히 지독한 상처를 내보이며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나 역시도 스스로도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그저 가슴에 묻어두며 시간이 가서 그것들이 저절로 없어져버리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트라우마는 자신의 불행에 되짚는 방법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언어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나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바라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지독한 상처' 라는 말 이외에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았다.

이 책의 저자인 수잔 브라이슨은 뜻밖의 성폭력 피해의 생존자다. 그녀가 그녀의 지독한 상처를 정제된 말들로 이야기하기 위해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고통들이 남들보다 절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살아가기 위해서 상처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녀의 행동은 정말로 용기였다. 트라우마는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인격의 붕괴를 불러일으키는 사건' 을 일컫는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개인들에게, 트라우마를 가진 채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는 트라우마를 가진 피해자들과 공감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분명히 자기가 다른 여성들의 모든 일반적인 경험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한다.



수잔 브라이슨, 「이야기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

1장에서는 그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에 살아남는다는 것이 피해자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서술한다. 이 작업은 그녀의 트라우마에 접근하기 위한 가장 초기의 단계이다. 그리고 2장에서는 '절히 이 개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라는 문제에 관해, 성폭력 피해 여성의 개인적인 경험이 어떤 식으로 묻혀져 왔으며, 개인이 겪은 폭력의 경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자를 이야기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성폭력 사건이기에 그녀의 경험을 어떤 식으로 존중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3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 성폭력 생존자로서의 자신의 트라우마와 그 트라우마로 인해 자신이 겪어야 했던 상처, 그리고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들을, 이야기, 망각, 다시 말하기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서술하기에 이른다.

나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도 불쑥불쑥 나타나는 성폭력이라는 트라우마를 2가지 입장에서 읽어야 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과 두 번째는 여성주의자로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물론 이 2가지는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각각의 상황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분명히 달랐다. 요컨대 나는 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함과 동시에 남의 상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생각했다.

수잔 브라이슨은 트라우마 치유에 대해 '이야기' 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한다. 그녀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상처와 마주하고 그 비탄의 화살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스스로가 자신의 상처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제' 할 수 있는 능동적인 화자로서 성폭력을 겪고 난 이후의 자신의 상태를 서술하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신의 세계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녀는 결코 상처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애써 없었던 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성폭력을 겪고 난 이후의 자신이, '뻥뻥' 했던 과거의 자신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자아 존중감을 떨어뜨리는 가장 무서운 일이다.

나는 한때 나의 트라우마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상처받지 않았으며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나는 분명히 상처 받았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으며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자신이 일종의 정신적 '병자'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무척 힘이 들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인정함으로써 인해 그 상처의 과오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 것이고 끊임없이 상처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트라우마가 있다면, 어떻게 트라우마와 공존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그 트라우마들을 '이야기' 하는 것은 통제불가능했던 나의 상처를 내 의지로 융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그녀는 이야기한다.

나는 내 주변의 성폭력 피해자를 보면서 여성주의자로서 그녀들의 피해를 해결해야 한다는 어떤 종류의 신념이나 혹은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다. 스스로의 상처 역시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표면적으로 그 사건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년이 지나도 자신의 트라우마에 괴로워하는 모습

내가 그동안 접했던 성폭력 이야기들은, 그것이 자신의 경험일 때는 특히 지독한 상처를 내보이며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나 역시도 스스로도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그저 가슴에 묻어두며 시간이 가서 그것들이 저절로 없어져버리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서 피해자가 어떻게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혹은 좀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성폭력 피해자의 주변 사람으로서 그녀가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과 해결의 의지(그것은 물론 내가 생각하는 해결이다)가 없는 피해자들을 볼 때 나는 항상 괴로워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볼 때 나는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여성주의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런 성폭력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가해자나 피해자의 공간 분리와 같은 실질적인 조치들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서 피해자가 어떻게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혹은 좀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성폭력 피해자의 주변 사람으로서 그녀가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나는 나의 상처에는 그토록 민감하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 책은 성폭력 생존자의 이야기로 자신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왜 그 이야기를 들어주어야만 하는 자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 상태와 성폭력을 당한 직후에 느끼는 심리적 박탈감과 가해자를 향해 풀리지 않는 분노가 처음에 왜 주위 사람들에게로 향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위 사람들이 그녀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성폭력 피해자의 생존을 위한 욕구가 있다면, 그녀가 이야기하고 싶어한다면 함께 공감하며 그녀의 언어를 같이 찾아보는 것일 뿐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폭력의 트라우마는 주위의 누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야기하기가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수잔 브라이슨은 자살한 자신의 오빠를 생각하며 이야기한다.

누구도 쉽게 '살아! 그런 성폭력 좀 털어버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좀 곳곳하게 살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결코 그녀들 앞에서는 풀어내지 못할 말 일지는 몰라도, 생존자로서의 자신이 가진 희망을 결코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성폭력의 피해자로서, 혹은 성폭력의 피해자의 주변사람으로서, 화자이기도 하고 청자이기도 한 나는 나의 이야기를 하며 그녀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그것이 비록 희망으로 가득찬 미치광이의 그것이라고 할지라도. **See Said**

by **아쟁씨까지** 서울대학교 여성주의자치언론 휴아썬스(jouissance.pe.kr)에서 활동 중
소녀 사자 아쟁씨까지 너무 많은 일을 벌려버린 자신을 자책하며 살고 있다. 인경은 바닥에 떨어져 작별을 고했고 심한 근시인 나는 아무 것도 보지 못한다. 세상에 인간이 너무 많다.

행복한 여성주의와
공감대화는
4

www.yonsei.ac.kr/~ysfem에서
행복한 여성주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말이 떨어지나도

정보의 바다를 헤엄치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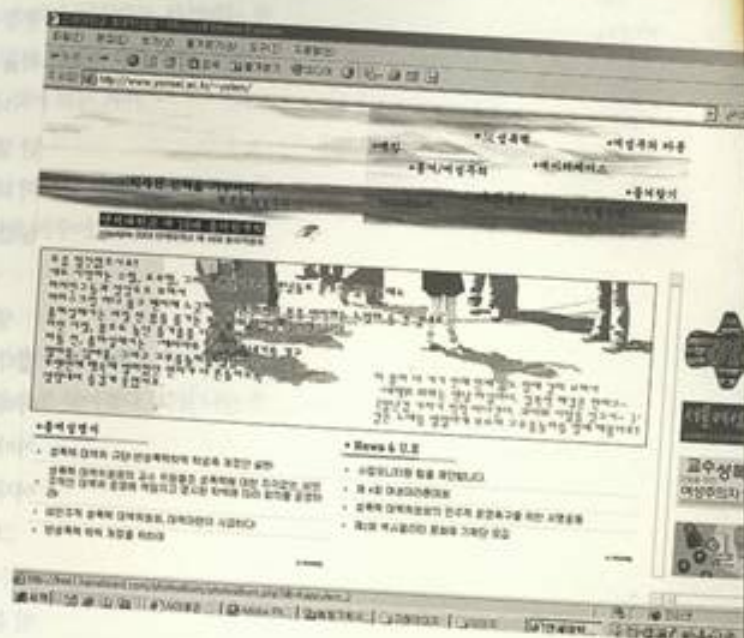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눈을 감아보세요.

아득한 고동소리도 들어보고, 향긋한 모란향기도 맡아보고,

신나는 고래 등 타기도 해 보고,

목이 마르면 생물도 따다 마시는 상상을 하며 열기를 식혀보아요.

www.yonsei.ac.kr/~ysfem에서 행복한 여성주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어리게 볼 것이고 어린 여자에 맞게 행동하기를 바랄 것이다. 애교 있고, 발랄하고, 그리고 말 잘 듣고, 마치 입 안의 혀처럼 굴어 줘야 하는 거야.

그녀들이 머리를 묶는 이유

요즘 나는 머리를 기르고 있다. 지금은 짧은 컷머리지만 어깨에 닿을 때까지 기르려고 한다. 나같이 컷머리를 다시 긴 머리로 길러 본 사람은 알 것이다. 머리가 얼마나 더디게 자라는지 그리고 머리 모양이 얼마나 어정쩡해지는지. 머리를 다시 기르는 것은 좀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내가 이 고통을 감당하는 것은 머리를 뽀글뽀글 묶어서 파마머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왜 굳이 파마를 하려고 하는 나고? 나이 좀 들어 보이고 싶어서.

나는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 양쪽 볼에 붙은 살 때문일 것이다. 뚱뚱하다 못해 뻥뻥하기까지 한 내 볼살이 젖살로 보이는지 덕분에 대학을 졸업한 지금도 가끔 미성년자라는 오해를 받는다.

나는 내가 어려 보인다는 사실이 은근히 좋았다. 한 살이라도, 아니 단 몇 달이라도 어려 보이게 하기 위한 온갖 화장술과 성형술이 판치는 이 나라에서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절로 어려 보이는 것도 복이지 않나 싶었다.

생각이 달라진 것은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4학년이 되고 난 다음이었다. 여학생들을 위한 수업에서 '너희들, 어려 보인다는 말 들으면 좋아하지? 그건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병한 애처럼 보인다는 얘기인 거야. 면접 볼 때 애기 같은 사람을 누가 뽑고 싶어 하겠니?'라는 어느 여자 교수님의 일갈에 나는 마치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본격적인 취업 시즌이 시작되는 9월을 앞두고 몇 년째 고수하던 긴 생머리를 컷머리로 싹둑 잘랐다. 커리어우먼 같은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싶어서였다. 뭐, 별로 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고등학생 같다는 소리만 잔뜩 들었다.

어쨌든 재수가 좋았는지 우여곡절 끝에 취직에는 성공했다. 아니나 다를까 회사에서도 나는 어려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학생 때와는 달리 그런 소리가 썩 달갑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주 기분 나쁜 정도는 아니었다. 회사에서 내가 가장 말단 사원이자 가장 어린 사람이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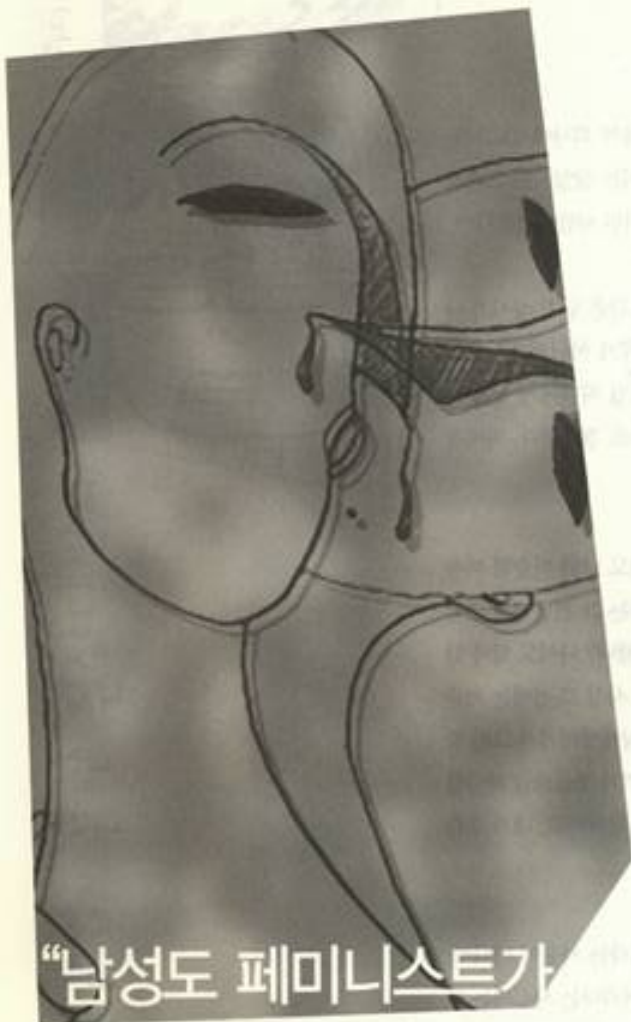
하지만 얼마 전부터는 정말로 아주 기분 나빠졌다. 나보다 나이가 열 살 많은 남자 상사가 나를 '애기'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목소리 꼭 깔고 '과장님, 저 애기 아닌데요.' 하면 '애기가 애기 아니라고 하네.'라고 더 놀려댔다. 급기야 이제 갓 입사한 신입 직원에게 일을 가르쳐 주던 도중 또다시 '애기야, 뭐 하니?'라는 말을 들은 나는 그 순간 바로 결심했다. 파마를 하기로.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같은 팀 선배가 파마를 하고 나타났다. 그 선배도 나와 비슷한 이유로 어려 보인다는 소리를 자주 들던 선배였다. 선배의 사연은 이랬다. 선배는 그 전날 외부업체 사람과 업무 문제로 다투던 중 '당신 몇 살이나? 회사 들어온 지 몇 년이나 됐나? 나이도 얼마 안 돼 보이는데 뭘 안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냐?'라는 어이없는 소리를 들었다. 사실 그 선배는 서른 살인데다 입사한지 오년째 된 제법 고참급이었는데 자기와 비슷한 연배인 상대방에게서 그런 말을 들은 것이다. 분을 참지 못한 선배는 그날 퇴근하고 바로 미장원으로 달려가 뽀글뽀글 파마를 했다. 선배가 말했다. '나보다 한 살 많은 인간이 그딴 소리 하나까 진짜 열 받더라고. 내가 우습게 보였나 보지?'

하지만 나도 알고 그 선배도 안다. 문제는 우리가 어려 보이는 여자들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진짜로 어린 여자들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파마를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어리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어리게 볼 것이고 어린 여자에 맞게 행동하기를 바랄 것이다. 애교 있고, 발랄하고, 그리고 말 잘 듣고, 마치 입 안의 혀처럼 굴어 줘야 하는 거야.

자기를 무시한 상대방과 다시 맞붙은 그 선배는 파마머리 때문이 아니라 자료를 더 철저히 준비한 덕분에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전략을 바꾸어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그 상사는 슬그머니 나를 다시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파마를 하기 위해 머리를 기르고 있다. 파마를 하면 그래도 학생 같다는 소리는 듣지 않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는 파마를 그냥 한번 해 보고 싶어졌다. 사실 나는 한 번도 머리를 묶어 본 적이 없거든. **See Said**



“남성도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는가?”

라고 묻는 남자애들에게.

여성운동을 하는 남성- 사실 이렇게 쓰는 건 귀찮다. 너무 길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싫어서이기도 하고, 사실 저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싫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깨네 싶어! 라는 것이 스스로에 대한 옹호, 자만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 지칭하는 어떤 남자아이들은 더 싫기도 하기 때문에, 딱히 애써 맘에 드는 지칭을 찾으려 하지 않지만.

얼마 전, 대학 여성주의 매체에 있는 어떤 남자아이로부터 인터뷰 제안을 받고, 별 생각없이 응했다. 별 생각없이, 나로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이기도 하고, 정리가 되었다기보다, 더이상 그것을 잡고 있어야 할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해야 하나. 정확히 말해, 나는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있어도 딱히 짊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제는, 굉장히 거만해져 버렸다. 겨우 1년만에

하지만 어찌되었건, 나는 남성이고, 여성주의라는 말을 들을 땐 알수없는 뭉클함들이 솟구치기도 하고, 이렇게 앞으로 변할 것 같지도 않고, 평생 저 말은 나를 떠나가지 않을테니, 중간중간 한번씩 그 생각들을 주저리주저리 적어놓을 필요는 있는 것 같다.

남성이 페미니스트가 되는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은, 사실 수많은 남성들이 여성주의에 처음 미약하나마 공감하기 시작할 때 한결 같이 갖는 의문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 하지만 나는 남자인데, 내가 지기에 공감한다고 내가 페미니스트가 되는거야? 라는 가벼운 의문에서부터, 하지만 사실 지금에 와서 나는 그다지 그런 의문이 들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답을 얻어서가 아니라, 쓸모없는 질문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면 어떻게 될 수 없다면 어떠한가. 애초에 그런 질문은 다 아는척 하는 남자애들을 제압하기 위한 질문의 성격이 강하다. 조금 듣고 나는 여성주의에 통달했다, 라는 재수없는 아이들 입을 막기 위한 생물학적 근본주의라 할 수 있지. 물론 생물학적 근본주의라는 건 농담이고, 어찌되었건 여성주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고민하는 데 있어서 가질 수밖에 없는 생물학적이건 사회적이건 남자애들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더할 수 없을만큼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는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남자애들이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시간낭비이자 도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는 정말 잘 모르겠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더 많이 듣고 싶고, 어떻게든 합이 되고 싶고, 그것이 나에게도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 남자아이들이 근데 나도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는걸까라고 고민하는 건 도피라고 할 수밖에 없다.

많이 배우고 혼나야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된다. 같이 뭔가를 하고 싶고 그러면서 스스로 많이 변하고 싶으면 그러면 된다. 왜 그러기 전부터, 혹은 그러는 도중에도 '페미니스트'라는 명찰을 달 수 있냐에 의문을 갖는걸까. 페미니스트가 될 수 없다, 라고 해서 그런 고민을 그만 두었다면 그 아이는 순전히 명함을 달기 위해, 자격증 하나를 붙이기 위해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척 하려 했던 것에 불과하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남자애들은 거의 없다고 본다. 요즘 사회는 여성주의적인 발언을 아주 조금 하는 남자애들도 열심히 띄워주곤 하니깐, 아무것도 한 일 없는 남자애들이 순식간에 남성 페미니스트로 떠오르는 게 현실이니깐.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은 어떠한가. 나는 솔직히 그것 역시도 또 다른 명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적당히 소심함을 드러내면서도 중간 정도의 명찰은 달고 싶다는. 하지만 내가 진짜 페미니스트이건 진짜페미니스트이건 아무것도 아니건 무슨 상관일까. 어떤 명찰이 붙는가에 따라 내 고민이 좌우된다면, 그건 가짜다. 남성이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건 없건 나는 변했고, 변하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란.

결국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느냐의 논쟁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거기서 하고 싶은 말은 생물학적, 혹은 사회적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말하려는 것 아닌가. 나는 이러이러한 조건에 있다 라는 것. 정작 중요한 것, 고민해야 할 것은 이 부분인데 사람들은 '그렇다면'이라는 이상한 구멍을 만들어놓고 도피한다. 나는 다행히 정상가족은 아니지만 돈 잘 버는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쓰는 학벌 좋은 남자 대학생이고, 훌륭한 여자친구들이 많으며, 그 애들이 여성주의라는 것을 말해줬는데 그게 '정말' 이더라. 고민해야 할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지, 거기서 다시 나는 뭔까 라는 이상한 질문을 할 게 아니다. 여성주의를 접하고 고민하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감수성과 경험이 부족하고 생물학적 조건에서도 차이가 난다면, 그만큼 배우려고 하고 낮추면 된다. 물론 이게 말은 쉽지만 절대 쉽게 되지 않는다는게 문제이긴 한다. 이 사회에서 남자애들은 그런 걸 도통 배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온 것이기도 하겠지만, 조금만 들으면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는 아이들에게 남성도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사실 넌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그 녀석이 생물학적 남성, 혹은 사회적 남성으로 길러졌다는 한계 때문이 아니라, 그녀석이 보이는 그런 태도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그런 것 하지 말라는 말이다.



결국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느냐의 논쟁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거기서 하고 싶은 말은 생물학적, 혹은 사회적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말하려는 것 아닌가. 나는 이러이러한 조건에 있다 라는 것. 정작 중요한 것, 고민해야 할 것은 이 부분인데 사람들은 '그렇다면'이라는 이상한 구멍을 만들어놓고 도피한다.



그런 걸로 고민하는 남자애들은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곤 한다. 남자가 여성운동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 그 말은 곧, 있으면 그 역할만 하겠고 없으면 안하겠더라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말이 좋아 역할이지,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명함을 달라, 라는 말이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여성운동단체의 후원자를 할 수도 있고, 포스터를 붙이러 다닐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어느 동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바뀌는데, '남자애가' 여성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니, 그건 정말로 배부른 소리다.

주체 되기. 어떤 운동이건, 혹은 운동이 아니건, 사람들은 항상 주체가 되기를 원하고, 특히 남자애들은 그게 더 심한 듯 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명함이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다. 나도 여성운동의 주체가 되고 싶다고, 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그런 걸 요구하는 남자애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자애들이 성폭력 피해경험을 이야기할 때 나도 이런 적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성폭력의 맥락을 완전히 지워버린다. 저지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때때로 듣는 여성들을 짜증나게 한다. 듣고 있는 것? 기껏 얘기해줬더니 조용히 있는 것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알장서서 이야기하는 것? 여기까지 와서 니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은 참으로 괴롭다. 결국 니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참 많다. 주체 되기, 하지만 거창하게 말하는 성별 권력관계는 개개인의 관계에서 치절하게 작용하고, 그런 상황에서 남자가 주체가 되는 것은 여자애에게 억압이 될 때가 많다. 모두가 똑같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여성주의 뿐만 아니라 어떤 운동, 어떤 공간에서도, 모두가 주체가 된다는 것은 그 속의 권력관계를 순식간에 무화시킨다. 때문에 여성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불편해서 다른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말에 나는 심각한 회의를 느낀다. 여성주의를 고민한다면, 그것은 여성 운동만이 아닌 어떤 운동, 어떤 곳에서도 계속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다른 운동을 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것은 그 곳에 있는 여성들이 여성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밖에 더되는가.

매우 간단하게, 나는 남자아이들에게 주체가 되지 않을 것을 권한다. 명함이나 자리에 연연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조용히 있거나, 다른 것을 열심히 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여기 와서, 조용히 들어라. 물론 나가야 할 것 같으면 재빨리 눈치껏 나가고, 열심히 듣고 고민하고 혼나면서 조용히 조금조금 신뢰를 쌓으라고, 니가 쌓은 신뢰만큼 너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물론 그 신뢰를 깨뜨리는 순간 너는 처음부터 다시라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보다 수천배, 수만배 소심해지라고, 소심해지고, 눈치를 키우라고, 네가 무심코 던진 돌에 여자친구들이 상처받는 게 두렵다면, 니가 할 일은 돌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돌을 던지지 않도록 눈치를 키우는 일이라고. **She said**

by 이스트

어쩌다 이 판으로 굴러 들어와서 지금은 관악여모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심하고 민첩하고 게으른 남자아이. 가장 자신 있는 것은 자보 붙이기와 편집 똑같이 따라하기 이간질.

여자만의 방



여자만의 방'은?

별거 없어요. 여자만 있는 방이랍니다.

하지만

캠퍼스 안에서, 캠퍼스 밖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여자들이끼리만 모여서 소곤소곤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은
눈을 백 네 번 씻고, 주위를 열 일곱 바퀴 돌아봐도 찾기가 힘들죠.

기쁨, 즐거움, 행복으로 가득차 마구마구 달리고 싶을 때도,
황당, 우울, 슬픔을 피하기 위해 마구마구 달리고 싶을 때도,
여자만의 방으로 달려오세요.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깐요.

*'여자만의 방' femisphere. cyworld. com

그녀는 말했고,
말했고,
또 다시 말한다...

She Said

2002년 펍이 수다

2003년 Day Dream

즐겁고 유쾌한, 그러나 진지하며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녀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여성들의 목소리.
사실 여성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이야기해왔습니다.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녀들이 마주하는 작은 문밖들과 푸른 명
그리고 새의 지저귐 같은 행복에 대해.
그러나 세상은 그녀들의 목소리가 가치 없는 것처럼,
혹은 아예 없는 것처럼 귀를 막거나 혹은 그 말들을 오역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소중한 그 목소리, 그녀들이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말해야 하는, 그리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목소리를 이어 이제, 2004년.
She Said로 다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